

## 코로나19 관련 해외시장 주간 동향 보고

(2021.7.20 기준)

### <중국>

- 시노팜, 시노백, COVAX에 7월부터 백신 제공(1억 1천 1백만 회분)으로 개발도상국에 접종 예정(7.12)
-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 및 유입 현황(7.19)
  - 일일 신규 확진자 31명(해외유입 26명, 본토(윈난성) 5명), 치료 중인 확진자 565명
  - 중국 내 고위험지역 1개소, 중위험지역 2개소(7.19)
    - \* 고위험지역 : 윈난성 루이리시(婁告國門社區)
    - \* 중위험지역 : 윈난성 루이리시(弄島鎮雷允村委會雷允村民小組), 윈난성 롱찬현(章鳳鎮迭撒村拉影村民小組)
- 중국 내 백신 누적 접종(1, 2차) 14억 4천 7백만 회, 접종률 102.5%(7.18)
  - 광시성, 후베이성 일부지역 12~17세 백신접종 시작(7.13)
  - 푸젠성 샤먼시 12~17세 백신접종 시작(7.15)

### <대만 · 홍콩>

- (대만) 팜행 백신 접종 에어텔 상품 인기에 각 여행사 8월 상품 출시
- (대만) 대만 반도체회사 ADATA, 직원 백신 접종용 팜행 전세기 운항(7.18~7.22, 참여인원 약 100명)
  - \* 회사지원금 NT\$10만(한화 약 400만원), 본인부담금 NT\$3만(한화 약 120만원)
  - 접종백신 개인 자율 선택(모더나, 화이자, 얀센 3종), 대만 복귀 후 14일 자가격리
- (대만) 아스트라제네카 및 모더나 백신 188만 도스 대만 도착(7.15)
  - \* 7.15(목) 현재 실제 확보 백신 누계 890.11만 도스 (전체 인구의 37.76% 1회 접종분)
- (대만) 최근 2주간(7.6~7.19)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3명으로 감소
- (홍콩) 홍콩, 7.16(금)부터 러시아발 입경조치 강화
  - 러시아, 고위험국가(B그룹)에서 초고위험국가(A2그룹)으로 분류 변경, 입국 시 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21일 호텔격리 시행
- (홍콩) 행정부, 중국 본토에 상용 목적 여행객 쿼터제 방식 격리면제 제안
- (홍콩) 홍콩 국내여행 보상 프로그램(Spend-to-redeem free tour)\* 인기,

### 홍콩관광공사(HKTB) 국내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계획 언급

\* Spend-to-Redeem Free Tour : 코로나19 기간 홍콩인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무료투어 캠페인. 소비자가 홍콩관광청 지정 소매점 및 식당에서 HK \$800 이상 지출 후 관광청 홈페이지에 해당 영수증 등록 시, 다양한 로컬 투어 상품에 무료 참가 가능(미식, 낚시, 농장체험, 반려동물 동행 투어 등 총 190여 개 국내여행 상품 이용 가능)

- (홍콩) 코로나 안정세 지속. 7.18(일) 지역감염 0건, 누적 확진 11,959건, 사망자 212명
- (홍콩) 7.12(월) 기준 백신접종 1차 282만명(전체 41.4%), 2차 201만명(29.5%)

### <일본>

-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입국 제한 완화,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협상 가속화
  - 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 중국, 영국 및 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 전망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촌 체류 해외 선수 2명 확진(7.18)
  - 대회 관계자 등 신규 감염자 10명 중, 최초로 선수촌 체류 선수 감염 확인
  - 한국 IOC의원, 일본 입국 후 확진 판정(7.17)
- 도쿄, 오사카 대규모 접종센터 설치기간 1개월 연장 방침(9월까지)
  - 당초 8월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한 이후 예약이 증가하여 운영 연장 결정
- 6월 중반 이후, 신규 감염자의 90% 이상이 50대 이하
  - 도쿄도 모니터링회의 발표 결과(7.15),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로 도쿄 올림픽 기간 중 대폭 확산 우려
- 일부 지역, 긴급사태선언 발령 중(7.12~8.22)
  - 코로나19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당분간 감염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 : 3개 지역(도쿄, 오키나와, 카나가와)
    - \*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지역 : 3개 지역(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 7.18기준, 전국 백신 접종인원 1회 접종자 42,640,078명(인구 33.54%), 2회 접종자 27,411,127명(인구 21.56%)
  -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완화(7.15)

## <동남아중동>

- (싱가포르) 7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싱가포르-호주 에어버블, 호주 내 확진자 급증 및 락다운 등으로 올해 연말 재논의 발표
- (태국) 외교부, 7.12일부터 사무이 플러스(Samui Plus)\*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허가서 발급 시작. 7.15일 꼬사무이로 총 11명 입국 예정
  - \* 사무이 플러스는 푸켓 샌드박스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태국 입국 30일 전 사무이섬(꼬사무이) 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 (카자흐스탄) 헝가리, 태국, 몽골, 조지아, 몰도바, 키르기스스탄과 코로나19 여권 증명서 상호 인정 관련 협의 중 발표(7.15)
- (터키) 보건부, 코로나19 중국산 시노백 접종자 부스터 샷(3차) 시행
- (몽골) 국립전염병센터, 나담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증가 우려
- (인도) 확진자 수 대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델리·하리아나 주 정부는 종교, 정치, 문화 집회 등 금지 조치 지속
-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7.10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센터 운영. 하노이시, 식당·미용실 영업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다시 강화
- (말레이시아) 관광부, 유명 관광지 랑카위를 코로나19 청정 관광지 지정 추진. 시범운영 후 페낭, 파항, 조흐바루, 사바 등 지역 추가 도입 예정(7.17)
- (필리핀) 정부, 메트로 마닐라 등 주요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격리조치 (General Community Quarantine, GCQ) 7.31일까지 연장
- (인도네시아) 8월, 백신 1차 접종률이 높은 자카르타 집단면역 형성 기대
- (UAE) 두바이 국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건수 450만 건 돌파(7.17)
  - \* 공항 내 코로나19 실험·연구소 운영('21.6월~)으로 검사 후 4~6시간 만에 결과 제공 가능

## <구미대양주>

- (뉴질랜드) 호주 2개주로부터 뉴질랜드행 트래블버블 중단
  - (뉴사우스웨일즈주) 6.23일부터 중단 지속
  - (빅토리아주) 7.16일부터 중단
  - (수도준주, 남호주주, 태즈매니아주, 퀸즐랜드주, 북부준주, 서호주주) 트래블버블 시행 중이나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필요
- (미국) 몰타, 7.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미국인 관광객 방문 허용

-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들은 마지막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몰타로 입국 허용.
- 8.1일부터 미국 CDC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되어야 백신접종증명서로 인정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곧 공개될 예정
- (캐나다) 캐나다, 8.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미국인 입국 허용, 9.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 대상 확대 적용 (7.19 발표)
  - 8.9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한해 비필수 목적 입국 허용
  - 백신 접종 완료자는 캐나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후 자유여행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및 2회의 PCR 검사 의무 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
- (영국) 아일랜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영국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 격리 없이 입국 허용(7.19~)\*
  - \* 그간 영국은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인 아일랜드발 입국시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등을 요구한 바 없으며, 아일랜드 정부도 16개월 만에 영국발 입국 제한을 (백신접종객 대상) 철폐하며, 영국 거주민이 백신접종만 마치면 코로나 검사도 필요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첫 나라가 됨
- (러시아) 러시아, 유럽연합(EU)과 백신 접종 증명서의 상호 인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유럽연합 대표단, 러시아 연방 보건부에 백신 접종의 디지털 증명서 사용 절차 및 상호 인정 가능성 논의 제안\*
  - \* 유럽연합은 이미 Digital Green Pass 전자 인증서에 대한 일반 및 기술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함
- (프랑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7.21일부터 보건 증명서 확대 적용
  - 50명 이상 여가시설 등 이용 시 보건 증명서(백신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결과서) 지참 의무화(7.21~)
  - 카페, 레스토랑, 병원, 양로원 시설 및 장거리 교통 수단 이용 시 보건 증명서 지참 의무화(8월 초~)

- \* (8.30~) 12-17세 청소년 대상 보건 증명서 지참 의무화
- \* (9.15~) 보건 종사자(의료진, 간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자, 의료 자원봉사자 등) 백신 접종 의무화

○ (독일) 연방관광청 장관,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 검사 무료 실시 폐지  
 - 관광청장관 Thomas Bareiß(CDU)와 바이에른 총리 Markus Söder(CDS)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백신 미접종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책임으로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

※ [참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외교부, 7.19 17시)

□ 총 180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수)
입국금지	51개국 * 중국 : 기존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20.3.28~) 단, 취업, 유학,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 동일목적 비자신청 가능
격리조치	10개국(전주대비 +1)
검역강화 및 권고	119개국(전주대비 -1)

\* 입국제한해제 : 8개 국가·지역

※ 참고자료

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3. 각국의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현황
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현황
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각 1부. 끝.

참고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7.20 기준)

국가	내 용	
중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여행(단체 및 에어텔) 상품 판매 금지( '20.1.24) 단, 산시(陝西)(3.16) · 장쑤(3.23) · 상하이(3.30) · 산둥(3.31) · 베이징(4.17) · 광둥(5.15) 등 지역 성·시 내 여행에 한해 순차적 여행 재개</li> <li>○ 감염병 관리 우수 지역의 성(省)간 단체상품 판매 및 운영 허가( '20.7.14)</li> <li>○ 중국대륙 주민의 미카오 입국 시 검역단계 하향조정 자기격리 면제( '20.7.14)</li> <li>○ 자국 내 저위험지역 이동제한조치 완화( '21.3.1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 입국 금지(~ '21.9.30) * 단, 중국·미카오·대만에서 14일 거주 후 입국시 비거주자 입국 가능</li> <li>○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합의(2020.10.15) * 시설격리·자기격리 해제. 여행목적이나 일정에 제한 없음 * 1차('20.11.21), 2차('21.5.6) 모두 시행전 코로나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 *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21년 7월 초 재개 계획</li> </ul>
홍콩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되었던 4인 초과 국내 단체여행 허용(4.29) - 투어 관계자 전원 백신접종 1차 완료 필요, LeaveHomeSafe 앱 사용 의무화, 여행일정 그린 에코투어 및 홍콩관광청 자유투어 프로그램 일정 진행 조건</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거주민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장기 의무격리 기간 필요(방한시 한국 14일, 홍콩 14-21일), 이에 따라 부득이한 목적 외 홍콩인 아웃바운드 수요 없음 * 중국·미카오·대만에서 입국 시 14일 자기격리 * 중국·미카오·대만 외 지역 입국시 14-21일 지정호텔 의무격리(출발국가별 상이) ※ 단,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후 항체 형성자의 경우 극초위험(A1), 초위험국가(A2) 제외 의무격리기간 14일⇒7일로 단축</li> </ul>
대만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광) 5.27-8.3, 관광산업 종사자(5만명)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li> <li>○ (안심관광) 7.1-10.31,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li> <li>○ 관광국, 국제관광 관련 예산(한화 400억원) 안심관광 지원금으로 추가 투입(8.28)</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관광객 유치) 거류증 미소지 외국인 입경 및 대만 경유 환승금지 ( '21.5.19-전염병 경계등급 3단계 유지 기간)</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필리핀 트래블 버블 개시( '21.4.1 첫 단체 출발) * 대만 내 전염병 경계등급 3단계 격상으로 트래블 버블 시행 일시 중지( '21.5.22-전염병 경계등급 3단계 유지 기간)</li> </ul>
일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활성화 「Go To 캠페인」 1조 6,794억엔 추경 예산 편성( '20.4.7)</li> <li>○ 관광청, 「Go to 트래블」 캠페인 7월 22일부터 개시 * 제외되었던 도쿄, 정식대상으로 추가 ( '20.10.1~)</li> <li>○ 오사카부, 삿포로시 등 코로나-19 급증지역 「Go To 트래블」 캠페인 일시정지 기간 연장( '20.12.14)</li> <li>○ 「Go To 트래블」 캠페인 전국 일시정지 실시( '20.12.28~ '21.1.11) * 도쿄도( '20.12.18~), 나고야시(20.12.16~), 히로시마(20.12.24~)은 선행하여 정지 실시 * 가구매건 축소 수수료 면제, 사업자 대상 여행 대금 50% 보상 방침</li> <li>○ 「Go To 이벤트」, 「Go To 상점가」 캠페인 일시중지(20.12.28~ '21.1.11)</li> <li>○ 비즈니스 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중단 조치 3.21일까지 연장( '21.2.2-3.21)</li> <li>○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Go To 트래블」 중단( '21.1.12~)</li> <li>○ 국토교통성 「Go To 트래블」 캠페인 중지 연장( '21.6월-연말) 여부 검토 중</li> <li>○ 지자체 내 투어(마이크로 투어리즘) 지원( '21.4.)</li> <li>○ 도쿄도, 골든위크(4월말-5월초) 관광 자제 요청 * 오키나와·홋카이도 등 골든위크 이후 확진자 수 대폭 증가 * 일부 지자체 내, 현민 대상 현 내 관광 대상 할인캠페인 소폭 재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계획 발표('20.7.1)</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시행 첫날 19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등록('20.7.17)</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으로 호텔 객실 예약 수 360만개 도달('20.7.21)</li> <li>○ 국내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의 혜택 확대 방안 승인('20.8.27)</li> <li>○ 관광청, 태국 거주 외국인(18만 명) 여행 장려를 위해 1인당 500바트 지원('20.9~11월) 준비</li> <li>○ 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 여행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여행 패키지 마련 및 외국인 대상 관광 보조금 제공 지원 계획('20.10.30)</li> <li>○ 백신 접종 목표 달성할 경우 8월 국내 관광 재개 예정('21.6.7) - 기존 We Travel Together(제3차) 및 Travel Around Thailand 프로젝트 시행을 통하여 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li> </ul>
태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상황관리센터(CESA), 3단계 재개방 로드맵 승인('21.3.27)</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상황관리센터(CESA), 3단계 재개방 로드맵 승인('21.3.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4-6월] (14일 → 7일로 격리기간 단축)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객 4월부터 7일간 시설 격리 후 6개 관광지(푸켓 그리비, 팡아수랏타나, 촌부리, 치앙마이) 방문 가능</li> <li>- [2단계, 7-9월] '푸켓 관광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의해 7월부터 푸켓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해외 입국객 격리 면제. 단, 입국 후 7일간은 지정 지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li> <li>- [3단계, 10-12월] 4분기부터 푸켓 포함 10개주 대상 푸켓 모델 적용</li> <li>- [4단계, '22.1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관광객은 격리 없이 태국 내 여행 가능</li> <li>○ 7일 격리 프로그램 적용 첫 번째 외국인 관광객 그룹(독일, 16명, 백신 접종 완료) 4.3일 타이항공을 통해 푸켓 도착</li> <li>○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 지원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정보센터(Entry Thailand) 개설('21.4.21)</li> <li>○ '푸켓샌드박스'에 따라 7개 항공사 7월부터 푸켓 직항편 운항 준비 착수('21.6.2)</li> <li>- 푸켓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통해 올 7.3일 미국발 첫 번째 단체 관광객이 푸켓에 도착할 예정. 동 프로젝트 시행 첫 3개월(7~9월)간 외국인 관광객 약 129,000명 유입 예상</li> <li>- 타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엘알 이스라엘 항공, 브리티시 항공, 에어 프랑스 등</li> <li>○ 총리, 120일 이내 태국 전역 개방 발표 ('21.6.17)</li> <li>○ 푸켓 샌드박스 프로젝트 실시 첫 날, 외국인 366명 입국('21.7.1)</li> </ul>
싱가포르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관광청(STB), Enterprise Singapore 및 센토사개발조합과 9개월 동안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 실시</li> <li>○ SingapoRediscoverers Vouchers(S\$100) 배포계획 등 세부사항 발표('20.9.17)</li> <li>- 18세 이상 국민에게 올 12월 배포 예정, 21년 6월까지 유효</li> <li>○ '20.9.18일부터 싱가포르 관광지 수용인원의 허용범위 확대(25%→50%, 야외 행사의 경우 50명→250명 미만)</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비자 소지자 입국 중단(5.7)</li> <li>- 2021.5.7. 이전 입국 승인된 근로비자 소지자이더라도, 5.11(화)부터 잠정 싱가포르 입국 중단 및 입국시기 재조정 필요</li> <li>* 항만, 건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장 근로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li> <li>- 가족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5.11(화)부터 잠정 입국 중단</li> <li>○ 싱가포르-호주, 유학생 대상 트래블버블 시범운영 합의</li> </ul>
말레이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단계의 이동제한명령(Recovery Movement Control Order, '20.6.10~8.31)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제외한 국내관광 전면 허용('20.6.7)</li> <li>○ 7월부터 테마파크/워터파크 영업 허가('20.6.30)</li> <li>○ 문화관광예술부, 국내여행활성화 캠페인 '큐티큐티 말레이시아' 실시 및 홍보 위한 5개 TV 광고 런칭('20.8.2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일부터 말년 싱가포르 상용 및 공무 출장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 Green Lane 실시('20.7.15)</li> <li>○ 정부, 2021년 2분기까지 외래관광객 입국 금지 가능성 언급. 각국 코로나19 2~3차 팬데믹에 따라 Green Lane 도입 재검토</li> <li>○ 인도네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21.2.6)</li> </ul>
베트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 캠페인('20.6.1~연말) * 항공권, 호텔, 입장료 할인 등</li> <li>○ 하노이 시, "safe-friendly-quality-attractive" 캠페인 추진</li> <li>○ 다낭 시, "Danang Thank you" 캠페인 추진</li> <li>○ 대부분 국내선 운항 재개('20.6.4)</li> <li>○ 철도청, 휴가철 탑승권 4,600장 50% 할인 판매('20.6.22~7.8)</li> <li>○ 베트남항공, 7.22일 이후로 국내선 총 61개 노선 운영 계획. 국내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할인 프로모션 진행</li> <li>○ 베트남 호치민-다낭 국내선 항공 운항 재개('20.9.10)</li> <li>○ 베트남 항공 그룹, '21.3.28일부터 하노이 호찌민-꾸안달랏 등 전국 15개 관광지를 연결하는 30여개의 국내 항공 노선 확대</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입국 일시 중단</li> <li>- 호치민 떤섯넷 국제공항 21년 6.14일까지 외국인 입국 중단</li> </ul>
인도네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여객운송 제한 완화 : 50% → 70%</li> <li>○ 호텔업계, '20.7월부터 운영재개 계획 발표</li> <li>○ 발리, 국내관광 허용(7월말) 계획 발표</li> <li>○ 2단계 국내관광객 개방 발표('20.7.31)</li> <li>○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 진출입 시 신속항원검사 강제</li> <li>○ 자바 및 발리섬, '21.2.8일까지 지역 활동제한조치 시행</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7일 한-인니 비즈니스 출장 신속입국(Fast Track) 시행</li> <li>○ 싱가포르-인니 비땀비판섬 한정 출입 허용하는 코로나 통로(Corona Corridor) 시행</li> <li>○ 외국인 대상 '21.2.8일까지 입국 금지 조치 시행</li> <li>○ 말레이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21.2.6),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li> <li>○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입국 시, 격리 14일 적용('21.6.7 기준)</li> <li>- 타 국가 5일 격리 유지</li> </ul>

필리핀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2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li> <li>○ 팔라윈섬 옐니도 국내관광 재개</li> <li>○ 국내선 항공 정상화를 위한 코로나-19 항원 음성검사 의무화 채택 예정</li> <li>○ '20.10.1일 보라카이섬 국내관광 재개(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li> <li>○ 지역사회 여행업 영업 재개 허용, 정원의 50% 이내 운영 가능</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2.26일부터 은퇴비자유화비자(2020.3.20 이전) 소지 외국인의 입국 허용 등 외국인 대상 필리핀 입국 금지조치 완화</li> <li>○ '21.4.21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령 발표</li> </ul>
인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5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li> <li>○ '20.7.6일부터 전국 주요 유적지(타지마할 제외) 재개방 발표</li> <li>○ 관광부장관, 국내여행 활성화에 집중한 정책을 펼칠 예정임을 발표('20.8.27)</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19일 기준 28개국과 에어버블 체결</li> <li>*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UAE, 카타르, 몰디브, 일본, 바레인,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부탄, 케냐, 오만,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네팔, 러시아, 세이셸,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인 관광객 허용 국가 현황</li> <li>* 총 9개국('21.3.16 기준) : 몰디브, 두바이, 러시아, 이집트, 케냐, 우크라이나, 바레인, 네팔, 터키</li> </ul>
UAE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몰, 관광지 등 정상 운영</li> <li>* 단,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li> <li>○ MICE, 공연 등 행사 개최 가능</li> <li>* 단, 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들로 제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7일부터 두바이 인바운드 관광 재개</li> <li>*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li> <li>○ '20.8.5일부터 한-UAE 간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li> <li>○ '20.12.24일부터 아부다비 인바운드 관광 재개, 관광객 입국 허용</li> <li>○ 아부다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Green List) 업데이트, 한국 포함 총 28개국('21.6.18)</li> <li>○ 바레인(5.10), 세이셸(5.13), 세르비아(5.15), 그리스(5.18)와 Travel Corridor 체결</li> <li>* Travel Corridor 체결국 출발 입국자 중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격리 없이 여행 가능</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완료 UAE 국민(거주자), 구미주 등 주요 목적지로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 가능</li> <li>* 업데이트 항공, 7월까지 총 19개국, 300개 격리면제 여행 가능 목적지로 항공편 운항 예정</li> </ul>
터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8일부터 국내관광 재개</li> <li>○ 터키 내 14개 도시간 항공 운항 재개(6.18) 계획 발표('20.6.2)</li> <li>○ 문화관광부, 7.1일부터 모든 관광시설 영업 재개('20.6.11)</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6월 중순부터 국제관광 재개</li> <li>○ 유럽 6개국(6개 도시) 항공 운항 재개(6.18) 발표('20.6.2)</li> <li>○ 9개국 36도시로부터 전세기 입학 시작(7월 1주차 우크라이나발 전세기 탑승객 1만 명 입국)</li> <li>○ 터키 안탈리아에 일 1만 명 외래관광객 도착('20.7.20)</li> <li>○ 유럽 주요국가(영국, 독일 등) 터키를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li> <li>○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정기 항공편 일시 중단('21. 5. 17 ~ )</li> <li>○ 여행 성수기 시즌(7~8월) 터키 주요 인바운드 여행지 '안탈리아 숙박시설 예약률 70% 달성</li> </ul>
카자흐스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부, 카자흐스탄 정부는 'Kids Go Free' 프로젝트 범위 내 국내 TOP10 관광지 14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위해 무료 항공권 제공 관련 법을 개정사항 검토 중('21.3.16)</li> <li>○ 보건부,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카자흐스탄 입국 금지 검토 중('21.3.31)</li> <li>○ 문화체육부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5인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 1인 유치시 15,000 텡게의 여행사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21.6.21)</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부 차관, 2021년 무시중 카자흐스탄 입국 허용 국가 리스트 확대방안 검토 중('21.2.18)</li> <li>○ 문화체육부, 2025년까지 외래 관광객이 카자흐 여행을 통해 최소 5일간 관광 상품 구매 시 여행사에게 1인당 15,000텡게(약35달러) 보상 계획('21.3.13)</li> <li>○ 정부, 2021년말까지 54개국 무시중 입국 금지 명령 연장(호주, 미국 등)('21.5.5)</li> <li>○ 정부, 헝가리-태국-몽골-조지아-키르기스스탄-몰도바 등 6개국 입국 시 백신여권 소지자는 음성 PCR 증명서 없이 입국 허용</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 여행사, 터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터키 여행상품 판매 중지, 판매된 여행상품 일정 연장 검토('21.4.16)</li> <li>○ 4.26일부터 카자흐스탄-터키 노선을 20회에서 9회로 감편('21.4.20)</li> <li>○ 보건부, 최근 14일 이내 인도 방문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했다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21.5.4)</li> <li>○ 카자흐스탄-몬테네그로 직항노선 주3회 운항 예정('21.6.21~)</li> <li>○ 정부, 벨라루스, 터키, 우즈베키스탄 직항노선 증편 결정('21.6.7~)</li> <li>○ 6.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내-외국인 모두 키르기스스탄 입국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R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li> <li>○ '21.6.19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백신 여권 없이도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li> <li>○ Air Astana 항공사, 6.22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 확인서 없이는 탑승 금지</li> <li>○ 6.22일부터 러시아터키 직항노선 개실, 카자흐스탄 터키 관광상품 단가 약 30% 증가 예상</li> <li>○ 헝가리, 카자흐스탄의 백신 여권(확인서) 인정</li> <li>○ 정부, 벨라루스로 신규 직항노선(벨라루스 민스크-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제안 발표</li> </ul>
몽골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일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관련 조사 중</li> <li>○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해외입국자 대상 시설 격리 면제, 백신 접종 받지 않았을 경우 시설 격리 기간 7일('21.4.3)</li> <li>○ '21.6.1일부터 항공 노선 재개 관련 검토 중('21.5.27)</li> <li>○ '21.6.1일부터 국경 봉쇄 해제('21.6.1)</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항공 재개 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지만 출국 가능('21.4.8)</li> <li>○ 항공편 운항 재개 기간을 6월 초까지 연기 및 점진적 항공 정기편 재개 예정('21.5.5)</li> <li>○ '21.6.1일부터 국경 봉쇄 해제('21.6.1)</li> </ul>
미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현대미술관 재개관(8.29)</li> <li>○ 미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 국내여행 홍보캠페인 'Let's go there' 출범('20.9.8)</li> <li>○ 미 CDC, 크루즈 항해금지 명령 해제, 조건적 크루즈 운항 허용(10.31)</li> <li>○ 카니발·디즈니 크루즈 라인, 5월까지 모든 크루즈 운항 중단</li> <li>○ 미 CDC, 크루즈 터미널 및 선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2.2)</li> <li>○ 뉴욕시 식당 실내영업 재개(2.12-) * 최대 수용인원의 25% 제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li> <li>○ 뉴욕주 실내외 경기장·공연장 2.23일부터 제한적 입장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의 10%로 입장 제한</li> <li>- 경기, 공연 관람 72시간 내 검사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li> </ul> </li> <li>○ 뉴욕주 놀이공원 및 실내 가족 휴양시설 제한적 재개장('21.3.26)</li> <li>○ 하와이주, 주민 대상 섬간 이동을 위한 백신여권 도입(3월)</li> <li>○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메이저리그 야구장 및 디즈니랜드 재개 제한적 허용(4.1~)</li> <li>○ 뉴욕주, 4월부터 국내 이동 의무격리 해제</li> <li>○ 아루바 정부, 젯블루 항공 이용 입국 시 백신여권 도입('21.3.16~)</li> <li>○ 미 CDC,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국내여행 가능 발표('2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국내여행 가능</li> </ul> </li> <li>○ 텍사스주, 주기관 등에 백신 여권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 시행</li> <li>○ 백악관 대변인, 미 연방정부 공인 백신여권 미발행 발표('21.4.6)</li> <li>○ 미 CDC, 백신 접종자 탑승 시 크루즈 운항 재개 조건 완화('21.4.28)</li> <li>○ CDC, 백신 접종자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가능 발표('21.5.13)</li> <li>○ 뉴욕 식당, 상점 등 실내외 인원제한 해제('21.5.19)</li> <li>○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백신여권 도입 검토 발표('21.5.28)</li> <li>○ 캘리포니아주 규제령 해제 및 경제 전면 재개('21.6.15)</li> <li>○ 뉴욕주 규제령 해제 및 경제 전면 재개('21.6.15)</li> <li>○ 셀레브리티 크루즈사 크루즈 운항 첫 재개('21.6.26)</li> <li>○ 뉴욕시 관광청, 뉴욕시 관광 홍보 TV 캠페인 개시('21.7.8)</li> <li>○ 시카고, 정상화 1달여 만에 여행주의보 재발령('21.7.1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6.8)</li>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 로 하향 조정(11.23)</li> <li>○ '21.1.26일부터 미국행 여행객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 필수</li> <li>○ '21.1.25일 남아공·영국·아일랜드 등 26개국 입국 금지 지속 발표</li> <li>○ 미국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 계획 발표('21.1.21), 세부 지침 향후 발표 예정</li> <li>○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백신여권 도입 검토 발표('21.5.28)</li>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최저 단계인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Exercise Normal Precautions)' 로 하향 조정('21.6.8)</li> </ul>
캐나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캐나다, 지역노선 수습개 운항 중지 발표</li> <li>○ 대서양 연안 4개 주로의 여행제한(업무, 의료, 생필품 조달 목적은 예외)</li> <li>○ 트래블버블(대서양 연안 4개 주) 방문 시 4개주 이외 지역에서의 방문자는 2주 격리, 4개 주 간에는 자유 이동</li> <li>○ 온타리오주, 이웃하는 타주(퀘벡, 마니토바주)와의 이동 재개 발표('21.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4월 금지되었던 2개 주간 이동을 필수목적 방문이 아닌 경우에도 육로 및 수로 경계 개방. 격리도 불필요</li> </ul> </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국경 폐쇄(외국인 입국 규제) 유지('20.3.18~)</li> <li>○ 캐나다-미국 육로국경 봉쇄('20.3.21~21.7.21) * 필수목적 국경통과로 제한(식품, 의약품, 기타 중요 품목 유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입국자(자국민 포함) 코로나19 증상에부 관계없이 14일 의무 자기격리(' 20.4.1~)</li> <li>○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기격리 계획 제공 필수(' 20.11.21~)</li> <li>○ 모든 입국자(자국민 포함, 5세 이상)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21.1.7~)</li> <li>* 도착 14일~90일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됨</li> <li>○ 모든 입국자에 입국 시 PCR 테스트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 의무격리(3일), 검사결과 음성 시 자택 격리, 양성 시 정부지정 시설서 격리(' 21.2.22~)</li> <li>- 공항도착 시 PCR검사 후 격리 8일차에 PCR자가검사(' 21.4.23~)</li> <li>* 기존 : 격리 10일차에 검사(도착 시 받은 검사키트 활용, 검사 후 연구소로 송부)</li> <li>○ 4개 공항으로 국제선 운항 제한(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li> <li>○ 육로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21.2.15~)</li> <li>○ 인도, 파키스탄발 항공기 입항 금지 연장(' 21.4.22, 11:30PM부터 ~6.21)</li> <li>○ 인도발 항공기 입항금지 연장(' 21.4.22.~7.21)</li> <li>○ 캐나다 입국규제 완화 1단계시행(' 21.7.5.자정부터)</li> <li>- 백신접종완료자 3일 호텔 격리 포함 14일 격리면제, 도착 8일차 검사면제</li> <li>- 대상자 한정(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기존 입국 가능 일부대상자)</li> <li>○ 21.8.9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 미국인 대상)(7.19발표)</li> <li>○ 21.9.7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캐나다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자 대상)(7.19발표)</li> </ul>
호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별로 지역 간 (Interstate) 여행 허가 여부 수시 변동</li> <li>- 각 주별, 뉴사우스웨일즈주 체류자로부터의 방문 제한 조치 유지</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뉴질랜드 간 쌍방향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현황</li> <li>- 2020.10.16.일부터 뉴질랜드&gt;호주 일방향 제한적 트래블버블 시행</li> <li>- 2021.4.19.부터 양방향 트래블버블 여행 시행</li> <li>· 양국 14일 이상 체류자의 경우 상호 방문 시 격리면제, 코로나19 백신접종 불필요</li> <li>· 콰타스, 젯스타 항공사 15개 노선 주 122회 운항 / 신규 노선 개설</li> <li>· 에어뉴질랜드 항공사 뉴질랜드 4개 도시-호주 8개 도시 간 15개 노선 운항</li> <li>- 호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지역 상황에 따라 트래블버블 중단, 재개 반복</li> <li>· 수도준주, 남호주주, 테즈매니아주, <b>퀸즐랜드주</b>, 북부준주, 서호주주로부터 뉴질랜드 무격리 여행 가능</li> <li>(단, 백신 투약 여부 상관없이 국제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li> <li>· 뉴사우스웨일즈주 → 뉴질랜드 트래블버블 중단. 지속(6.23일부터)</li> <li>· 빅토리아주 → 뉴질랜드 트래블버블 중단.(7.16일부터)</li> <li>○ 뉴질랜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3백만 달러 캠페인 'Be the First' 4 ~ 6월 중 시작.</li> <li>○ 해외로부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21.1.22일부터)</li> <li>○ 뉴질랜드-쿡제도 간 트래블버블 운영 중</li> <li>- 쿡제도 주민이 뉴질랜드를 격리 없이 방문 가능(21.1.21~)</li> <li>- 쿡제도~뉴질랜드 간 쌍방향 여행안전지대 운영 중(21.5.17~)</li> </ul>
독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인구 10만명 당 일주일간 신규확진자수 100명 이상시 아간통행금지, 접촉자수 제한 등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브레이크 도입이 가능한 감염방지법 개정</li> <li>○ 코로나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대상 일부 봉쇄조치 해제(5.8일부터)</li> <li>○ 바이에른주 5.21일부터 호텔 숙박업소 캠핑장 재개, 베를린 5.24일부터 일부 봉쇄 해제 등 일부 주 5월 중 봉쇄해제 시도</li> <li>○ 코로나19 대응 비상브레이크 6.30일 종료. 최근 7일간 신규 확진자 수에 따른 봉쇄 단계에 따라 봉쇄령 완화. 단, 실내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일부 방역 지침 의무</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일부터 2주간 통계에 의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경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여행 주의 등 3단계로 발령</li> <li>*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단계 해당</li> <li>○ 2021.1.1.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모든 여행목적 체류 가능</li> <li>○ 변이 바이러스 위험지역 출발 운송 금지</li> <li>* 2주마다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따라 지역별, 국가별 별도 발령</li> </ul>
프랑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나 일부 제한조치 유지</li> <li>○ 6.26부터 오를리공항(국내 및 유럽노선 거점) 운영 재개</li> <li>○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li> <li>- (마르세유) ~8.31까지 4개 박물관 무료입장</li> <li>- (노르망디) 국내관광 신규 캠페인(#올 여름은 노르망디에서) 추진</li>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 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1.6~)</li> <li>○ 부분적인 국내여행 1차 재개(4.12) 후 5.17일 모든 국내여행 재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내) 출발 72시간 내 PCR검사 음성 결과확인서 제출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외) 1.31일부터 非유럽연합(EU) 국경 잠정 폐쇄 (지속)</li> <li>* 불가피한 직업상의 사유 또는 건강상의 사유 등 예외적 입국 시, 입국목적 확인서,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확인서(영문, 11세이상),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 및 7일 경과 후 PCR재검사 실시 동의 및 서약서 필수지참</li> <li>○ 한국 등 7개 국가* 대상 예외적 여행제한 완화(3.11~). 72시간 이내 음성결과 증명서 지참 시 입국 허용</li> <li>*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7개 국</li> <li>* 한국 등 상기 7개국은 코로나19 안전국가(Green List)로 지정, '20년에도 예외적 여행제한 완화(무비자 입국 유지 등)를 적용한 바 있음</li> <li>○ 정부, 인도발 변이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 및 15개국 여행객 대상 입국 제한 ('21.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의무국가 : 영국, 북아일랜드, 비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터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브라질, 칠레</li> <li>- 정부는 입국객 대상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준수여부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음. 단, 자가격리 의무국가로 지정될 경우 격리장소를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음 (위반 시 1천유로 부과)</li> </ul> </li> <li>○ 5.31일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발 비필수 여행객 입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EU 회원국민, 프랑스 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하며 입국 전 PCR 테스트와 7일 자가격리 필요</li> </ul> </li> </ul>
영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21.1.6~)</li> <li>○ 부분적인 국내여행 1차 재개('21.4.12) 후 5.17일 모든 국내여행 재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면제 대상 59개 지역 발표(7.10~) * 아웃바운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변경 지속</li> </ul> </li>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에서 67개 지역 해제(7.4~)</li> <li>○ 국내외 여행 금지(3차 봉쇄령/1.6~)</li> <li>○ 자가격리 면제 부여 제도(travel corridor) 긴급 중지(1.18~)</li> <li>○ 해외여행 일부 재개(5.17~) * 단, 정부지정 녹색국가(green list)에 한함</li> <li>○ 백신 2차 접종 14일 경과 후 황색 국가(amber list)를 방문했다가 입국하는 영국 거주민 자가격리 면제(7.19~)</li> </ul>
러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1일부터 의료면허 소지 치료목적 휴양소 영업 재개</li> <li>○ '20.7.1일 러시아 지역 간 국내관광 재개</li> <li>○ '20.12.15일까지 국내관광 활성화 캐시백 캠페인 시행</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일부터 국제선 일부 운항 재개</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스페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목적으로 러시아발 입국 금지</li> <li>○ 조건 충족 러시아 관광객, 터키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utnik V, Sputnik Light, EpiVacCorona, 및 KoviVak을 접종한 러시아 관광객의 터키 입국 허용. 영어로 작성된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li> <li>- 입국 전 코로나19에 걸린 관광객은 항체 존재 증명서 소지 시 입국 허용</li> <li>-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항체도 없을 경우, 터키 입국 72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 포함 인증서 소지 시 입국 가능</li> </ul> </li> </ul>

## 참고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7.20 기준]

### <한-중국>

- 항공 동향** \* 민항국(民航局) 통지 의거, 2020.3.29부터 항공사별 1개 노선 외, 전 노선 운항중단
- \* 중국 민항국(民航局)의 《5·1정책(항공사별 1개 국가, 1개 노선, 1주 1편 운항)》(3.29~) 지속 하, 《제5차 국제항공편 조정(외국항공사의 중국 노선 조건부 운항 재개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6.8~)정책 발표에 의거, 한-중 양국 국제선 확대 합의에 따라 항공노선 지속 증편 중(7월~)

구분	항공사	운항노선	운항일자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KE)	인천-선양	매주 금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수요일
		인천-톈진	매주 화요일
		인천-다롄	매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OZ)	인천-창춘	매주 화요일
		인천-난징	매주 일요일
		인천-청두	매주 목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목요일
	제주항공(7C)	인천-웨이하이	매주 수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수요일
	진에어(LJ)	제주-시안	매주 목·토요일
	에어부산(BX)	인천-닝보	매주 일요일(~ '21.8월 운휴)
		부산-칭다오	매주 목요일
	티웨이항공(TW)	대구-엔지	매주 목요일
		인천-우한	매주 수요일
인천-지난		매주 금요일	
에어서울(RS)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인천-칭다오	매주 화요일	
중국 항공사	중국국제항공(CA)	인천-베이징	매주 금요일
		인천-다롄	매월 1회( '21.7.22,8.19,9.16,10.14)
	중국남방항공(CZ)	인천-선양	매주 일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목요일
	중국동방항공(MU)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금요일
	샤먼항공(MF)	인천-샤먼	매주 월·토요일
	산둥항공(SC)	인천-칭다오	매주 금요일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선전항공(ZH)	인천-선전	매주 수요일
칭다오항공(QW)	인천-칭다오	매주 토·일요일	
춘추항공(9C)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월요일	
	인천-닝보	매주 금요일( '21.7월 운휴,8.6부터 재개)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톈진	(진천선무) 인천-톈진	여객운송 중지( '20.1.20~)
동북3성	(동방명주) 인천-단둥	여객운송 중지( '20.1.28~, 화물수송은 지속)
	(범영훼리) 인천-잉커우	여객운송 중지( '20.2.3~)(화물운송 지속)
	(대인훼리) 인천-다롄항	여객운송 중지( '20.2.20~)(화물운송 지속)
산동성	모든 노선	여객운송 중지 (화물 정상 운송)
장쑤성	(연운항훼리) 인천-렌윈강	여객 탑승 중지( '20.2.1~)

## <한-홍콩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홍콩 주 3회(수, 금, 일) 운항( '20.6.16-)
아시아나	운항	인천-홍콩 주 2회(화, 금) 운항( '20.3.24-)
티웨이	운항중단	인천-홍콩, 대구-홍콩, 제주-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이스타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제주-홍콩( '20.3.3-)
에어부산	운항중단	김해-홍콩( '20.2.16-)
제주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18-), 제주-홍콩( '20.2.12-)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캐세이퍼시픽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1-)
캐세이드래곤	운항중단	제주-홍콩( '20.2.6-), 부산( '20.2.6-) * 캐세이드래곤 10.21 폐업
홍콩익스프레스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3-추후 공지시), 김해-홍콩( '20.3.3-추후 공지시)
홍콩에어라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2-)

## <한-대만>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 '20.2.25~)
	운항	타오위안-인천(주3회, 화, 금, 일)
아시아나	운항중지	까오슝-인천(2020.2.26~), 타이중-인천(2020.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4회, 수/목/토/일)
진에어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화물기만 주2회 운항중)
제주항공	운항중지	까오슝-인천( '20.2.26~), 까오슝-제주( '20.2.25~), 타오위안-대구( '20.2.26~), 타오위안-무안( '20.2.24~), 타오위안-부산( '20.2.26~), 타오위안-인천( '20.2.26~), 타오위안-제주( '20.2.26~), 타오위안-청주( '20.2.17~), 까오슝-부산( '20.6.1~)
에어부산	운항중지	까오슝-부산( '20.2.25~), 까오슝-인천(운항취소), 타오위안-대구(운항취소)* 타오위안-부산( '20.2.17~)
이스타	운항중지	까오슝-인천( '20.2.26~), 송산-김포( '20.2.27~), 타오위안-인천( '20.2.26~), 타오위안-제주( '20.2.17~), 타오위안-청주( '20.2.19~), 화론편-인천( '20.2.18~), 타오위안-부산( '20.2.16~), 화론편-부산( '20.2.18~) ※ '20.9.4 이후 업데이트 없음
티웨이	운항중지	까오슝-부산( '20.2.21~), 까오슝-인천( '20.2.26~), 송산-김포( '20.2.27~), 타오위안-대구( '20.2.11~), 타이중-인천( '20.2.25~), 타이중-부산( '20.2.18~)
플라이강원	운항중지	타오위안-양양( '20.2.25~)
중화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 '20.2.28~), 까오슝-인천( '20.2.28~), 송산-김포( '20.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1회, 금) * 7.16(금), 7.23(금), 7.30(금) 3회 운항
에바항공	운항중지	송산-김포( '20.2.26~), 타이중-인천( '20.2.27~), 까오슝-인천( '20.2.27~)
	운항	타오위안-인천(주1회, 일)
유니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이거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대구(2020.2.25~), 타오위안-부산(2020.2.27~), 타오위안-제주(2020.2.25~), 타오위안-인천(2020.2.25~)
캐세이퍼시픽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10~)
타이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3.5~)
스쿠트항공	운항	타오위안-인천(주1회, 금)

### □ 크루즈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지룽	(프린세스)지룽-일본-한국-지룽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룽	(코스타)지룽-한국-일본-지룽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몽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몽골항공	특별기	인천-울란바토르 10회('21.8)
대한항공	특별기	인천-울란바토르 4회('21.8)
에어부산	특별기	인천-울란바토르 1회('21.8)
아시아나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8 운항중단)

## <한-일본>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 '21.7.31)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7.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21.7.31 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7.31 주 2편(수, 목) 운항, 21.8.1~8.31 주 3편(수, 목, 토) 운항) 나고야-인천(~ '21.8.31 주 1편(토) 운항) 후쿠오카-인천(~ '21.7.31 비운항, 8.12 운항)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7.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8.31, 주 5편(월, 화, 목, 금, 일) 운항 21.7.1~8.31 주5편(월 화목금일) 운항, 7.1, 7.5, 7.6, 7.8, 7.12, 7.13, 7.16, 7.19, 7.20, 7.22, 7.26, 7.27, 7.29 운휴) 나고야-인천(~ '21.8.31 주 1편(금) 운항, 7.2, 7.9 운휴)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7.31) 후쿠오카-인천(~ '21.8.31 비운항)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9.15)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21.9.15 운휴) 간사이-인천(~ '21.9.15 운휴) 후쿠오카-인천( '21.7.1~9.15 비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0.30)
진에어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21.7.31, 주 1편(수) 운항) 간사이-인천(~ '21.7.31 운휴) 후쿠오카-인천(~ '21.7.31, 매주 화요일 운항 * ~' 21.6.1, 6.8, 6.15, 6.22, 7.6, 7.20 운휴)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7.31)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 '20.10.16~, 주 3편(일, 화, 금) 운항)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7.31) - 후쿠오카-인천(~ '21.7.31 비운항)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 '21.7.31 주 1편(토) 운항) 간사이-인천 (~ '21.7.31 주 1편(일) 운항, 7.4, 7.18, 7.25 운휴)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일본	(비틀)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카메리아)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칸푸페리) 시모노세키-부산	전 노선 운휴 (~ '21.7.31)
일본	(팬스타) 오사카-부산	당분간 운휴



## □ 크루즈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지롱	(프린세스)지롱-일본-한국-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롱	(코스타)지롱-한국-일본-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태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KE654, 주 7회) 운항
아시아나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OZ742, 주 4회, 수/금/토/일) 운항 * 3.1일부터 주 2회 → 주 4회
타이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TG656, 주 1회, 일) 운항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노선 현재 운항 중단 - 방콕-인천, 방콕-부산, 방콕-대구, 방콕-무안 등

## <한-싱가포르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4회(월/수/금/일 ~2021.7)
아시아나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2회(금/일, ~2021.8)
제주항공	운항중단	싱가포르↔부산 노선 비운항(~2021.8)
싱가포르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6회(화-일, ~2021.7)

## <한-필리핀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KE624 주7회) 1개 노선 운항
아시아나	감편	마닐라→인천(OZ70 주7회) 1개 노선 운항
제주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필리핀항공	감편	마닐라→인천(PR5468/PR5469 주 2회) 1개 노선 운항
세부퍼시픽	감편	마닐라→인천(5J194 주1회) 1개 노선 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플라이강원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진에어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팬퍼시픽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서울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델타항공	취항 연기	인천-마닐라(~미정)

## <한-말레이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KL 주 2-3회 운항 * 항공화물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수요가 주를 이룸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말레이시아항공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 <한-인도네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가루다 인도네시아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2회 운항(화, 목)
	운항중단	발리-인천 운항중단
대한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화, 금, 일) 발리-인천 운항 중단(~2021.6)
아시아나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수, 금, 일)

## <한-베트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3회 운항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아시아나	감편운항	인천-하노이 주 3회 운항 * 한국에서 승객 없이 빈 항공기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 및 화물 운송
에어부산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호치민-인천 노선 주 2회 운항 재개( '20.7.22~)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제주항공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밤부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12월부터 주 1회 운항 예정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베트남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1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 <한-인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 인디아	운항중단	델리-인천노선 주 4편(화, 토) (~미정)
대한항공	운항중단	뭄바이-인천노선(주 3회) → 뭄바이 지점 폐쇄 델리-인천노선 (~미정)

## <한-네팔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카트만두 운항중단(~2021.7)

## <한-UAE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두바이( '20.3.5~)
에미레이트항공	부분재개	인천-두바이 주 7회('21.7월~)
에티하드항공	운항재개	인천-아부다비 주 7회( '20.6.10~)

\* '20.6.23일부터 목적 제한 없이 한국으로 여행(이동) 가능(단, 시증면제협정이 중단된 상태로 비자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입국 불가)

## <한-터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터키항공	운항재개	이스탄불-인천 주 3회 운항
대한항공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12월)
아시아나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12월)

\*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중단 상태로 별도 방문비자 발급 필요

## <한-카자흐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아스타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2회(월,수) 운항( '21.7.15~)
아시아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1회(목) 운항

## <한-우즈베키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하위올라르	감편운항	타쉬켄트-인천 주 2회(목, 일) 운항 ( '21.5.9~)
아시아나	감편운항	타쉬켄트-인천 주 1회(수) 운항
대한항공	감편운항	타쉬켄트-인천 주 1회(수) 운항

## <한-스리랑카, 몰디브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델리지사 관할구역인 몰디브-스리랑카 구간 대한항공 운항이 잠정 중단</li> <li>- 몰디브(말레)-스리랑카(콜롬보) 운항 중단(~2021.6)</li> <li>- 스리랑카-한국(인천) 운항 중단(~2021.6)</li> </ul>

## <한-영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런던-인천(주1회(토)) * 7.6, 7.13, 7.20 : 부정기편 운항(단, 한국 국적자만 탑승 가능)
아시아나	감편	런던-인천(주1회(토))
영국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 '20.4.11~2021년 하반기)

## <한-이탈리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 '21.7.30) 인천-밀라노(~ '21.7.30)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 '21.7.30) 인천-베니스(~ '21.7.30)

##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 '20.7.3~ '21.8.31/ 주3회(화,금,토))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연기( '20.3.30→ '21년 9월 예정)

### <한-프랑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 '21.7.30)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파리(~ '21.7.30)
에어프랑스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 '21.7.30)

### <한-스페인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마드리드(~ '21.7.30) 인천-바르셀로나(~ '21.7.30)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바르셀로나(~ '21.7.30)

### <한-독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루프트한자	감편	뮌헨-인천 7월 중 주 2회, 8월부터 매일 운항 예정 프랑크푸르트-인천 7월 중 주3회 감편운행, 8월 ~ 10월 주 5회 예정
아시아나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 '20.10.12~) 주3회, 감편운행 연장
대한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20.7.1~) 주 2회, 감편운행 연장

### <한-폴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LOT	운항재개	바르샤바-인천( '20.7.3~) 주 4회(월,수,금,일)

### <한-캐나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캐나다	감편	인천-밴쿠버 : 주 3회 (밴쿠버-인천 : 주 2회 *수일)
	감편	인천-토론토 : 주 4회 (토론토-인천 : 주 2회 *월금)
대한항공	감편	인천-밴쿠버 : 주 4회
		인천-토론토 : 주 3회

### <한-네덜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암스테르담(주7회→주1회, ~ '21.7.30)
KLM	감편	인천-암스테르담(주7회→주5회, ~ '21.7.30)

## <한-미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정상운행 (1)	인천-애틀랜타(주7회, '20.9.1~) 인천-괌 (주7회 '2021.11.1~)
	감편 (8)	인천-샌프란시스코(주5회, ~2021.8.31) 인천-뉴욕(주7회, ~2021.8.31) 인천-시카고(주3회, ~2021.8.31) 인천-워싱턴(주4회, ~2021.8.31) 인천-LA(주11회, ~2021.8.31) 인천-시애틀(주3회, ~2021.8.31) 인천-댈러스(주3회, ~2021.8.31) 인천-보스턴(주3회, 12.1~2021.8.31)
	운항중단 (2)	인천-라스베가스(~2021.8.31) 인천-호놀룰루(~2021.8.31)
아시아나	감편 (4)	인천-뉴욕(주 10회, ~2021.8.31) 인천-LA(주 10회, ~2021.8.31) 인천-샌프란시스코(주4회, ~2021.8.31) 인천-시애틀(주3회, ~2021.8.31)
	운항중단 (1)	인천-호놀룰루(~2021.8.31)
델타	정상운행 (1)	인천-디트로이트(주7회 '20.6.1~)
	감편 (2)	인천-시애틀(주7회→주4회, '20.7.1~) 인천-애틀랜타(주7회→주5회, '20.8.1~)
	운항중단 (1)	인천-미네아폴리스('20.2.29 ~ )
유나이티드	감편 (1)	인천-샌프란시스코(주7회→주3회, '20.7.1~)
아메리칸	정상운행 (1)	인천-댈러스(주7회, '20.6.4~ )
하와이안	감편 (1)	인천-호놀룰루('20.3.4~, 기존 주5회)
에어서울	정상운행 (1)	인천-괌(주 2회, 2021.8.12~)
티웨이항공	정상운행 (1)	인천-괌(2021.7월~)
에어부산	정상운행 (1)	인천-괌(2021.9월~)

\* 대한항공 : 미국노선 전편 발열 체크 의무화 및 추가 기내 방역 강화

## <한-사이판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아시아나항공	운항재개	인천-사이판(주 1회, '21.7.24~)
티웨이항공	운항재개	인천-사이판(주 1회, '21.7.29~)

## <한-호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젯스타	운항중단	골드코스트-인천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브리즈번-인천
		시드니-인천 2021년 7월 중 4회
아시아나항공	부정기운항	시드니-인천 2021년 7월 ~ 10월 중 4 또는 5회

## <한-뉴질랜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뉴질랜드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7 ~ 9월 중 월 1회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7월, 4회(매주 목요일)

## <한-러시아>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모스크바-인천( '20.3.5~)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9~) * 12.4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오로라항공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하바롭스크-인천( '20.9.17~) : 주 7회 운항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 8.1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으나 현재 연말까지 운항 일정 취소
S7항공	운항중단	노보시비르스크-인천( '20.9.2~) : 주 2회 운항(수, 토)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이르쿠츠크-인천( '20.3.1~)
야쿠티아항공	운항중단	야쿠츠크-인천( '20.3.1~)
제주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에어부산		블라디보스톡-부산( '20.2.26~)
아에로플로트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1~) * 12.3일부터 매주 목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블라디보스톡	동해-블라디보스톡	동계 정기휴항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 (당초 휴항 예정 기간 : 2019년12월 ~ 2020년 3월초)



**참고3**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 (해외지사 동향보고, 7.20)**

□ **총 29개국**

No	구분	국가	관리 조치
1	중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일부국가·미국·이란·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15개국 대상 자국민 여행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3.17)</li> <li>▶ 중국민 해외여행 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4.21)</li> </ul>
2	비중국 중화권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격상(홍콩 보안국, '20.2.25)</li> <li>▶ 해외 모든 지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홍콩 보안국, '20.3.17)</li> <li>▶ 해외지역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국가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위험국가(브라질,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아일랜드, 영국)</li> <li>- 고위험국가(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17개국)</li> <li>- 중위험국가(고저위험국가 외 전체, 한국포함)</li> <li>* 입국 시 21일 호텔의무격리, 백신접종자 한하여 14일로 단축</li> <li>- 저위험국가(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li> </ul> </li> </ul>
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4단계(방문부적합, 최대한 빠른 철수) 발령(대만 외교부, '20.3.19)</li> <li>▶ 해외 모든 지역 여행 적색경보 발령(대만 외교부, '20.3.21)</li> </ul>
4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마카오 위생국, 2.23)</li> <li>* 고위험지역 방문객 대상 별도 지정장소에서 검역 강화</li> <li>▶ 한국 2단계 여행경보(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2.25)</li> <li>▶ 해외 모든지역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3.19)</li> </ul>
5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류자격 보유자에 한해 일본 재입국 허용( '20.9.1)</li> <li>* (PCR)출국전 검사증, (대사관 발급)재입국확인서 지참 조건</li> <li>▶ 중장기 체류 대상 외국인, 일본 신규 입국 허용( '20.10.1~)</li> <li>* 출국 전 PCR 검사 음성,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 조치 확약이 가능한 기업, 단체 대상, 입국자 수 한정 조건</li> <li>▶ 양국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20.10.8)</li> <li>* 단기출장자용 '비즈니스 트랙' 과 장기체류자용 '레지던스 트랙' 으로 운영,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증 제시 등 조건충족시 14일 격리조치 면제</li> <li>▶ 대한민국 전역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방문)로 격하( '20.10.30)</li> <li>▶ 영국발 변종 유행 우려로 전세계 대상 신규 외국인 입국 재금지</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개( '21.1.14~2.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연장( '21.2.8~3.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연장(3.8~3.21)</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연장(당분간)</li> </ul>
6		태국	▶ 태국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국가 공무 여행 금지 발표(태국 내무부, '20.3.1)
7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여행 자제(싱가포르 보건부, '20.3.18)</li> <li>▶ 한국·독일·말레이시아 대상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Fast lane 제도 3개월 중단 발표( '21.1.30)</li> <li>* 신속통로제도와는 별도로 한국 입국 시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li> </ul>
8	아시아 중동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8~3.31 이동 제한 명령으로 해외여행 금지(말레이시아 총리실, 20. 3.16)</li> <li>▶ 20.8.31까지 이동 제한 명령 5차 연장(말레이시아 총리실, '20.6.7)</li> <li>▶ 국경봉쇄 지속 실시(싱가포르 국경에서 400명/주 한도 내에서 사전허가에 의한 출퇴근만 허용)</li> <li>▶ '21.3.5일부터 KL, 셀랑고르 등 수도권 조건부이동금지령으로 단계 하향, 회복 이동금지령 지역 간 관광객 방문은 허용하되 반드시 여행사 상품을 통해야 함</li> <li>▶ (21.3.30) KL, 셀랑고르 등 수도권 조건부이동금지령 5.20일까지 연장 발표</li> <li>▶ (21.5.10) 전면이동금지령 전국 확대 ( '21.5.12~ '21.6.7)</li> <li>▶ ( '21.5.22) 전면이동금지령 방역지침 강화( '21.5.25~ '21.6.7)</li> <li>▶ (21.5.28) 6.1~6.14 3차 완전 봉쇄조치 시행</li> <li>▶ (21.6.12) 3차 완전봉쇄조치(Full Lockdown) 기간 연장 발표 ( '21.6.1~6.28)</li> <li>▶ (21.7.2) KL·셀랑고르 외 8개 지역 강화이동금지명령시행(KL, 7.3~7.16)</li> </ul>

			▶ (21.7.17) KL·셀랑고르외 8개 지역 강화이동금지명령 종료, 폴라다운으로 1단계 하향 적용(KL, 7.16~)
9		베트남	▶ 여행자제 국가로 한국 지정(베트남 총리, '20.2.21)
10		인도네시아	▶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여행 연기·자제 및 방문금지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2.24) ▶ 전세계 지역에 대한 비필수적인 해외여행 제한 및 해외여행중인 자국민 조기 귀국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3.17)
11		필리핀	▶ '20.3.17~4.13 루손섬 전체 봉쇄·격리 조치 시행(필리핀 대통령, '20.3.16) ▶ 해외노동자, 외국인 제외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필리핀 외무부, '20.3.18)
12		인도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여행 자제 권고(인도 보건·가족복지부, '20.2.26) ▶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인도대사관 '20.2.24)
13		터키	▶ 한국, 이탈리아, 이라크-터키 출도착 항공 전면 중단(터키 보건부, '20.2.29) ▶ 해외여행 자제 권고(터키 보건부, '20.3.11)
14		UAE	▶ 한국 '저위험국가' 로 분류, 목적제한 없이 여행 가능('20.6.23) * 단,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 잠정 중단 상태로 별도의 비자발급 필요(사실상 단순 관광 목적 입국 불가)
15		카자흐스탄	▶ 한국 포함 감염 발생 27개국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카자흐스탄 보건부, '20.2.6)
16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으로의 여행 제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20.3.9)
17		오만	▶ 자국민 해외 출국 금지(오만 최고위원회, '20.3.18)
18		이란	▶ 외무부 한국 여행 자제 권고(이란 외무부, '20.2.29)
19		쿠웨이트	▶ 2.7일부터 2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입국 중단, 국민 대상 비필수적 해외여행 금지 권고('21.2.7)
20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 항공 운항 중지. 한국여행 자제 권고(이스라엘 보건부, '20.2.23)
21		몽골	▶ 코로나19 발생국가 여행 자제 경고(환경관광부, '20.1.31) ▶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방문중지)으로 지정(국가비상대책위원회, '20.3.2) ▶ 몽골 국경 봉쇄 해제 및 출입국 허용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상 중(몽골외교부, '21.6.3)
22	미주	미국	▶ 전 세계 61여개 국가 대상 4단계(여행금지)에서 3단계(여행재고)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6.8) ▶ 한국 여행경보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Exercise Normal Precautions)' 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6.8)
23		캐나다	▶ 한국 위기단계(1단계:Take normal security precautions) 캐나다 정부 공식 여행권고 3단계(Avoid non-essential travel) * 거의 모든 나라에 3단계 적용
24	구주	독일	▶ 2021.1.1.부터 모든 여행 목적의 한국인 입국 허용 ▶ 모든 불필요한 해외 여행 경고(20.12.16) * 코로나19 위험지역 대상 신호등제 도입을 통해 여행 위험, 경고, 주의 등 표시
25		프랑스	▶ 한국 여행등급 1단계(정상)에서 3단계(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 권고)로 격상(프랑스 외무부, 2.25)
26		영국	▶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영국 외무부, 3.17) ▶ 해외여행중인 영국국민 즉시 귀국 권고(영국 외무부, 3.23) ▶ 여행금지 권고 해제(7.4)
27		러시아	▶ 한국 여행자제 권고(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관광청, 외교부, 2.26) ▶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권고(러시아관광청, 2.27) ▶ 모스크바 제외 항공운항 제한(러시아교통부, 3.1) ▶ 국제항공노선 운항 전면중단(러시아연방항공청, 3.27) ▶ 국제항공노선 일부 운항 재개(8.1) ▶ 방한항공노선(모스크바-인천) 운항 재개(9.27)
28		벨기에	▶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하지 말 것을 권고(벨기에 외무부, 3.2)
29	대양주	호주	▶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 발령(호주 외교통상부, 4.1) ▶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예외적 경우 제외 모든 해외 출국금지조치 발효(호주 외교통상부, 3.25)

**참고4**

**한국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20)**

No	시행일	국가	관리 조치
1	'20. 2.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및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중지</li> </ul> </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li> <li>-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 시행</li> <li>-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연락처 확인</li> <li>-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2주간 앱을 통해 상태 의무보고</li> </ul> </li> </ul>
		전세계	▶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 이용 중지
2	'20. 2.12	홍콩·마카오	▶ 특별입국절차 시행
3	'20. 3.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중지</li> <li>▶ 일본 주재 모든 공관 발급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사증 효력 잠정 정지</li> <li>▶ 신규 비자발급 심사강화</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4	'20. 3.12	이탈리아·이란	▶ 특별입국절차 시행
5	'20. 3.15	프랑스·독일·스페인 ·영국·네덜란드	▶ 특별입국절차 시행
6	'20. 3.19	전세계	▶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확대 시행
7	'20. 3.22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발 입국객 전원 대상 별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li> <li>* 무증상자 외국인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li> <li>* 무증상 내국인 : 자가격리,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li> </ul>
8	'20. 3.2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li> <li>▶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음성판정 시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 및 한국 내 체류 보장</li> </ul>
9	'20. 4.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입국자(내·외국인)는 14일 자가격리</li> <li>*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국익, 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제외)</li> </ul>
10	'20. 4.13	아·태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li> <li>▶ 4.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 효력 잠정 정지.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li> <li>▶ 단기취업(C-4),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li> </ul>
11	'20. 4.13	미국	▶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
12	'20. 7.13	방역강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li> <li>* 해당국가 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li> </ul>
13	'20. 7.20	방역강화 대상국	▶ 기존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 7.20일부터 2개 국가 추가
14	'20. 7.31	재입국 외국인 관리 필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파악, 입국 심사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할 경우(관내 고시원, 모텔 등) 시설격리</li> <li>▶ 난민 신청자 중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 대상 난민심사</li> </ul>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
15	'20. 7.31	특별 입국대상자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 기재 의무화
16	'20. 8.3	방역강화 대상국 및 러시아 출항 선원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
17	'20. 8.10	중국	▶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해지 ▶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사증제한 해지 ▶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해지
18	'20. 8.17	전세계	▶ 8.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한국정부의 방역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부담
19	'20. 8.24	전세계	▶ 8.24일 0시부터 상대국가의 한국인 대상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정도 및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유입 외국인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부담 조치 - 126개국 중 58개국이 한국인 환자 대상 일부지원, 66개국이 전액지원 중(12월 기준)
20	'20. 9.30~ 10.4	전세계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 계속 실시
21	'20. 12.23~ 21.1.7	영국, 남아공	▶ 검역강화 : 입국 시, 격리해제 전 검사, ▶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 '20.12.23~' 21.1.21) ▶ 입국심사 강화 및 발열 기준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
22	'21. 1.4	전세계	▶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공항입국자 1.8일부터, 항만입국자 1.15일부터) ▶ 해외입국자 시설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3	21.1.4	영국, 남아공	▶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 중단,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 중단
24	21.1.12	영국, 남아공	▶ 영국·남아공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음성 확인까지 격리
25	21.1.12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6	21.1.18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 시기를 1일 이내(당초 3일)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 강화
27	21.2.8	아프리카 전역	▶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외국인→내·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28	21.2.11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 PCR 검사 3회 실시 - 입국전(음성확인서) → 입국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 격리해제 전 ▶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및 격리 강화(전수 1일실 격리)
29	21.2.11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을 고려하여 방역 강화국 지정 및 주기적 조정. 항공편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 격리면제제도 원칙적 중단
30	21.5.4	인도	▶ 1주일간 시설격리 강화 (입국시) PCR 입국 확인서 제출 → (입국후) 7일간 시설격리(1일 내 진단검사+6일차 진단검사) →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해제전 검사)
31	21.5.5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 충족시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조정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 실시(6~7일차, 12~13일차),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철저히 준수,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예정 ※ 단,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시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실시
32	21.5.11	인도	▶ (검사) PCR 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 직후(임시시설), 시설퇴소 전(임시시설), 격리해제 전(지자체) (격리) 7일 임시시설 + 7일 자가격리
33	21.7.4	인도네시아	▶ PCR 음성 확인서 미 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34	21.7.5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회수 단축 : [기존] 4회 → [변경] 2회 -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용 1회, 입국 후 6~7일차 1회

35	21.7.5	백신 미접종 입국자	▶ PCR 검사 실시 총 3회 : 입국 72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1회, 한국 입국 후 1일 내, 격리 해제 전 1회
36	21.7.5	예방접종확인서, 음성확인서 모두 미제출자	▶ 격리기간 단축 : [기존] 14일간 시설격리 → [변경]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37	21.7.15	전세계	▶ 내국인 포함 모든 입국객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음성확인서 미 소지시,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제한

※ ('20.4.13일 시행) 사증면제 잠정 정지 국가·지역(90곳)

구분	사증면제협정국가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아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라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레소토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참고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7.20 기준)**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중화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활용 외교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백신 지원 진행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 백신 국민 접종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백 백신 일반승인( '21.2.6)</li> <li>○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lt;코로나19&gt; 백신 접종 기술 가이드라인(제 1판) 발표( '21.3.29)</li> <li>○ <b>코로나19 백신 접종(1,2차 합계) 횟수 약 14.47억회(인구 102.5%) ( '21.7.18)</b></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정부 총 2,250만 회 분(홍콩인구 3배수)의 백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노백, 미국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각 750만 회 분량 백신 구매 계약완료</li> </ul> </li> <li>○ 코로나 백신 관련 원스톱 웹사이트(<a href="https://www.covidvaccine.gov.hk/en/">https://www.covidvaccine.gov.hk/en/</a>) 운영</li> <li>○ 백신수급 및 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노백 100만 회분, 화이자 백신 134만 회분 수급완료(3.7일 기준)</li> <li>- 우선접종대상 370만 명 대상 접종시행(2.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병 방지 관련 의료진 및 직원</li> <li>2) 60세 이상 노인층 (70세 이상 노인동반 보호자 최대 2명 접종가능)</li> <li>3) 노인 및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li> <li>4)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자</li> <li>5) 국경간 운송·이동 관련 종사자(운송트럭 운전자, 항공승무원, 선원 등)</li> <li>6) 식음료, 슈퍼마켓, 택배운송업, 대중교통 운송업, 건설업, 관광업 등</li> </ol> </li> <li>- 만 30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백신접종 대상 확대(3.16-)</li> <li>- 포장결함으로 일시중단(3.24)되었던 화이자 백신 접종 재개(4.5-)</li> <li>- 만 16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백신접종 대상 확대(4.23-)</li> </ul> </li> <li>○ 29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민간클리닉, 정부병원 의료시설, 요양병원 등 4개 채널에서 접종</li> <li>○ 정부 플랫폼 'iAM Smart+' (<a href="https://www.iamsmart.gov.hk/en/">https://www.iamsmart.gov.hk/en/</a>)에서 온라인 백신접종 예약 가능, 접종 후 디지털 증명서 발급 가능 등</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을 위한 HK\$ 10억 상당의 보상기금 조성</li> <li>○ 시노백 백신 3세~17세 대상 접종 긴급 승인(6.5)</li> <li>○ <b>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 1차 282만명(41.4%), 2차 201만명(29.5%) 완료( '21.7.19 기준)</b></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C(질병관리센터), COVAX 등을 통해 2,981만 명분을 기 확보한 것으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Z(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도스</li> <li>- COVAX 보급분 476만 도스</li> <li>- Moderna 505만 도스</li> <li>- 자체 개발 백신 1,000만 도스 (임상 2상 진행 중, 8월 접종 목표)</li> </ul> </li> <li>○ 백신 수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3(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7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3.22(월)부로 의료진 6만 명 대상 접종 개시</li> <li>- '21.4.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COVAX 보급분) 19.92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4.21(수) 비즈니스, 유학, 치료, 인도적 목적 해외방문자 대상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만 도스) 자비 접종 사전예약 개시, 5.15(토)부 백신 수급 문제로 자비접종 예약 일시 중지</li> <li>- '21.5.19(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COVAX 보급분) 41.04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5.28(금) 모더나 백신(업체 계약분) 15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6.4(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본 정부 지원분) 123.85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6.18(금) 모더나 백신(업체 계약분) 24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6.22(화) 모더나 백신(미국 정부 지원분) 250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6.30(수) 모더나 백신(업체 계약분) 41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7.7(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업체 계약분) 62.6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7.8(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본 정부 지원분) 113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7.15(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본 정부 지원분) 97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7.15(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업체 계약분) 56만 도스 대만 도착</li> <li>- '21.7.15(목) 모더나 백신(업체 계약분) 35만 도스 대만 도착</li> </ul> </li> <li>○ 백신 접종현황 ('21.7.18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5,064,007명 (전체 인구 대비 21.48%)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li> <li>- (2차) 130,100명 (전체 인구 대비 0.55%)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li> </ul> </li> </ul>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제스(DNA 백신) :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개시</li> <li>- 시오노기제약(유전자 재조합 백신) : 1-2차 임상시험 개시(12월)</li> <li>- 타케다약품공업(유전자 재조합 백신) : 미 노바백스의 제조기술 이전</li> <li>- KBI바이오로직스 : 내년 1월 1·2차 임상시험 동시실시, 2023년 실용화 목표</li> <li>- 다이이치산쿄(mRNA 백신) : 내년 3월 임상시험개시 목표</li> </ul> </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총 856만회분/약 428만명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화이자 1억 9,400만회분(9,700만명분) / 6월 말까지 1억 회 이상 확보 예정</li> <li>- 미국 모더나 5천만 회분(2,5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 <li>-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6,0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 </ul> </li> <li>○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아비화학(아비간) : 제조판매승인 신청(10.16)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 '20.12.21)</li> </ul> </li> <li>○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 및 계획 발표( '21.2.16)</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접종순위</th> <th>대상자</th> <th>접종(예상)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의료종사자 선행접종</td> <td>희망자 약 4만명</td> <td>'21.2.17~</td> </tr> <tr> <td>2</td> <td>의료종사자 우선접종</td> <td>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td> <td>'21.3.1~</td> </tr> <tr> <td>3</td> <td>고령자 우선접종</td> <td>65세 이상 3천6백만명</td> <td>'21.4.12~</td> </tr> <tr> <td>4</td> <td>기타</td> <td>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백신, 후생노동성이 승인할 경우 16세 이상 접종으로 검토 중( '21.1.10)</li> <li>○ 일본정부, 백신 접종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특별사이트와 공식 트위터 계정 개설( '21.1.22)</li> <li>○ 백신접종 체제 및 운영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예정(1.27)</li> <li>○ 의료종사자 대상 선행접종 개시( '2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접종 의료 종사자 대상 2회 접종분을 포함한 필요량 공급(접종완료 7월말 전망)</li> </ul> </li> <li>○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접종 개시 예정( '2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대상 2회 접종분을 포함한 필요량 공급 완료 전망( '21.6월 말)</li> </ul> </li> <li>○ 16세 이상 전체 접종대상자 접종분 확보 전망(~ '21.9월말)</li> <li>○ 현재 총 접종횟수 : 70,051,205회( '21.7.18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오사카에 백신 접종 센터 개설 운영( '21.5.24~)</li> <li>* 15개 광역지자체 독자 접종센터 설치 예정</li> <li>* 64세 이하 일반접종, 지자체별·직장 및 대학 등 집단별 접종 개시( '21.6월 중)</li> </ul> </li> </ul>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1.2.17~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	'21.3.1~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21.4.12~	4	기타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1.2.17~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	'21.3.1~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21.4.12~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																
이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생산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작. 연간 2억 도스 생산, 5월부터 공급 가능</li> <li>○ 코로나19 백신 2.14일 첫 접종 준비, 머프롬 앱 등록 필수(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만 도스 도착, 의료진 우선 접종, 2.12일까지 머프롬 앱을 이용하여 사전 등록 필요</li> </ul> </li> <li>○ 2월말 시노백 백신 20만 도스 도입, 향후 순차적으로 타 백신 도착 예정('21.2.15)</li> <li>○ 시노백(20만),아스트라제네카(11만7천) 백신 첫 출하 물량(총 31만 7천 회분) 태국 도착('21.2.24)</li> <li>○ 정부, 중국과 아세안 거주 화교대상 백신접종센터 설립 협의('21.3.9)</li> <li>○ 태국산업연맹, 정부와 별개로 시노백 백신 10만 회분 주문('21.3.19)</li> <li>○ 태국산 코로나19 백신"NDV+HP-S"첫 임상시험 승인('21.3.22)</li> <li>○ 태국 식약청,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등록 승인('21.3.25)</li> <li>○ 정부, 민간병원 총 1천만 회분의 백신 자체 수입 허용('21.4.11)</li> <li>○ 일본 코로나 치료제 '아비간' 200만정 태국 도착( '21.4.26)</li> <li>○ 모더나, 태국 식약청에 백신 등록 신청( '21.4.29)</li> <li>○ 태국 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월부터 공급 예정( '21.5.6)</li> <li>○ 시노백 백신 총 600만회 분 태국 도착( '21.5.20)</li> <li>○ 보건부, 태국 내 체류 중국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준비( '2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지역병원 등 의료시설 또는 라인, 머프롬 앱을 통한 예약접수 시작</li> </ul> </li> <li>○ 전국 76개 주, 6.14일부터 일반국민 대상 백신접종 예약 실시('21.5.30)</li> <li>○ 방콕시, 백신 부족으로 6.15 이후 예약된 백신 접종 연기( '21.6.13)</li> <li>○ 시노팜 백신 100만회 분 도착, 접종 시작( '21.6.25)</li> <li>○ 공중보건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 높이기 위해 교차 접종 승인('21.7.13)</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인 장기거주자는 백신 무료 접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분 '20.12월 말부터 접종, 21년 말까지 모든 사람 목표, 의료 종사자, 노인 및 취약계층 우선 접종</li> </ul> </li> <li>○ 정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3분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li> </ul> </li> <li>○ '21.1.27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개시</li> <li>○ 보건부,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조기 접종 허용 계획('21.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상황 : 학업 및 업무, 중환자 돌봄, 해외진료 필요 등</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 45~59세로 확대</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세 미만 싱가포르 거주자, 6월부터 백신 접종 예약 신청 시작 계획</li> <li>○ 보건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선택 가능 발표</li> <li>○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기, 1차 접종 후 6~8주 후로 연기('21.5.21)</li> <li>○ 코로나19 백신 아시아 최초 전 국민의 50% 이상 1차 접종 완료('21.6.19)</li> <li>○ 6.18일부터 24개 시설 의료시설에서 시노백 백신 접종 가능</li> <li>○ 6.26일부터 백신 접종 가속화. 현재 일일 투여량에서 70% 증가한 일일 8만회 투여 계획</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러시아-중국산 백신 1,830만 도즈 공급 계약 체결(1.26)</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재확인</li> <li>- 2~4월 의료진 등 50만명 1차 접종, 4~8월 고령자 고위험군 등 940만명 2차 접종, 5월~'22년 2월 18세 이상 성인 대상 3차 접종. 전국 600개 접종센터에 백신 보관소 설치 및 접종</li> <li>○ '21.2.26일부터 전국 600여개의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시작</li> <li>○ 보건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분 도착('21.2.21), 2.24일부터 접종 개시</li> <li>○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도입 검토('21.4.16)</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차 신청 접수 개시('21.5.21)</li> <li>○ 21년 8월 말~9월 초부터 사전예약 없이 백신 접종 실시 예정</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노젠(Nanogen) 제약사,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임상시험 착수</li> <li>*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2021년 5월 출시 계획</li> <li>○ '21.2월 말까지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490만 회분 확보 예정</li> <li>○ 베트남 첫 번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1만 7,600회 분량 2월 24일 도착</li> <li>○ 3.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21.3.23)</li> <li>○ COVAX, UNICEF로부터 지원받는 170만 회분의 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5.16. 도착 예정</li> <li>-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만 회분은 '21.4.1. 도착</li> <li>○ 총 1억 1천만회분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확보 발표('21.5.14)</li> <li>○ 중국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21.6.9)</li> <li>○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 자체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출시 임박('21.6.23)</li> <li>○ 모더나 백신 사용 긴급 승인 ('21.6.29)</li> <li>○ 미국 지원 모더나 백신 200만회분 하노이 도착 ('21.7.10)</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2021년 백신접종 계획</li> <li>- 의료진·군/경·법조인·공공서비스 종사자('21.1~4), 취약계층 일반 국민 등('21.4~'22.3)</li> <li>○ 자카르타주, 백신 접종 거부시 벌금 5백만 루피아 부과</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및 대상자 발표</li> <li>- 1차 ('21.1월~4월) : 의료/보건 종사자 130만명 및 공무원 174만명 대상 접종</li> <li>- 2차 : 18~59세 연령층</li> <li>○ 국내산 Merah Putih 백신, 3월경에 Biofarma를 통해 임상시험 진행 예정</li> <li>○ '21.2.17일부터 5월까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60세 이상 고령층 9백만명 대상 2차 백신 접종 실시</li> <li>○ 식약청(BPOM), 시노백 긴급사용승인(EUA) 발급('21.2.16)</li> <li>○ 전국 10개소에서 고령층과 관공업종사자 위한 드라이브 스루 무료백신접종 시행</li> <li>○ 보건장관: 백신부족으로 4월 접종 지연 불가피('21.3.27)</li> <li>○ '21.3.25 시노백 백신 1600만 도즈 확보, Covax통해 확보한 AZ 포함 총 5760만 도즈 확보</li> <li>○ 민간주도백신접종(VGR), 5.18일부터 시행, 시노팜 백신 1,500만 도즈 확보('21.5.19)</li> <li>○ '21.5.16부터 사용이 일시 중단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재허가 ('21.5.27)</li> <li>○ 자카부담 개인 민간주도백신접종(VGR Individu)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보건 장관령 발표</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자방정부-제약회사 간 3차 협약 승인, 7개 제약회사와 계약예정, 올해 5~7천만명분 접종 예상</li> <li>○ '20년 11월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0만회분, '21년 5월 도착 예정</li> <li>○ 정부, 코박스 등 해외 여러 코로나19 백신 공급업체로부터 1억7천만회 분량 확보 완료, 올해 성인 약 7천만명 접종 가능</li> <li>○ '21.2.28일 필리핀에 첫 코로나 백신 도착 (중국 정부가 기증한 시노백 백신 60만회 분), 3.1일부터 25만 명의 의료진 및 5만 명의 군인 우선 접종 시작</li> <li>○ 코박스 제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만7천회 분. 3.4일 필리핀 도착</li> <li>○ 정부, 올 연말까지 전국민의 70% 백신접종 완료 계획</li> <li>○ 중국 추가 기증 시노백 백신 40만회분 도착, 수도권, 세부, 다비요지역 우선배당 예정('21.3.24)</li> <li>○ 총 3백만회 분의 시노백 및 52만회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필리핀 도착('21.4.22)</li> <li>○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 계약체결 8월 인도 예정, 6월말 현재 총 1억1,300만회 접종분 확보</li> <li>* 화이자 4천만회분 시노백 26백만회분, 스푸트니크 1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7백만회분</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3일부터 인도 내 백신 접종 시작 예정, 올해 8월까지 3억명 접종 계획</li> <li>○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인도 최초 긴급사용 승인, '21.1.1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li> <li>○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로 18세 이상(기존 45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토록 정책 변경('21.4.26)</li> <li>○ 인도산 '코백신', 2~18세 대상 임상 2·3상 돌입</li> <li>* 어린이·청소년 대상 접종이 집단면역 필수조건으로 판단, 성인 접종 조건으로 긴급 승인된 '코백신'에 대한 18세 이하 추가 임상 돌입</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보건 당국, 시노팜(중국 국영 제약사) 백신 공식 등록('20.12.9)</li> <li>- UAE에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실시('20.7월) 및 긴급사용 승인('20.9월)</li> <li>- UAE 국민/거주자 중 우선 접종 대상자 백신 무료 접종 시작('20.12.12~)</li> <li>* 우선 접종 대상자 :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의료진, 공항 근무자, 교사 등</li> <li>○ UAE 아부다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시작('20.12.7)</li> <li>○ 두바이 보건 당국,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긴급 등록 및 두바이 국민/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21.12.23~)</li> <li>○ UAE 보건 당국,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1.21)</li> <li>○ UAE 보건 당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2.2)</li> <li>○ 16세 이상 모든 UAE 거주자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21.3.21~)</li> <li>- '20.12월부터 6주간은 취약계층(노인, 기저질환자 등), 의료업계 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li> <li>○ UAE G42* 그룹 및 중국 CNBG(시노팜), UAE 내 백신 생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출범('21.3.28)</li> <li>* G42 : UAE 아부다비에서 2018년 설립된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 확대('21.4.17)</li> <li>- 모유 수유 중 혹은 임신 계획 중인 여성,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 격리 해제 즉시 접종 가능</li> <li>○ 아부다비 보건 당국,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 승인('21.4.21)</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연령 확대 : 16세 이상→12세 이상('21.5.14~)</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21.6.29~)</li> <li>○ UAE 보건 당국,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7.4)</li> <li>○ UAE 내 공식 등록 백신('21.7.6. 현재) : 시노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스푸트니크V,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li> <li>○ 보건당국,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권고('21.7.7)</li> </ul>
	사우디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단계별 접종시작('20.12.15)</li> <li>- (1단계) 65세 이상 국민/거주자, 감염에 취약한 인력(의료진 등), 만성 질환자 등</li> <li>- (2단계) 50세 이상 국민/거주자, 보건의료 일반 종사자 등</li> <li>- (3단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거주자</li> <li>○ 보건당국,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21.7.9)</li> <li>-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존슨&amp;존슨에 이어 4번째 승인</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슨&amp;존슨 백신 사용 승인('21.6.8)</li> <li>- 현재 쿠웨이트 내 접종가능 백신 :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amp;존슨</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현황, 접종 계획 발표('20.12.14)</li> <li>- 터키 당국은 현재 16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 중이며, 이중 가장 빠른 것은 1개 제약회사가 임상 1상 완료 후 2상 진행 예정('20.12.25)</li> <li>- 터키 국민 2,500만 명 총 2회 접종 가능한 약 5,0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완료(시노백)</li> <li>- 12월 25일 첫 접종시작, 2~3주간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 예정</li> <li>- 접종 대상 5개 그룹으로 분할하며, 의료종사자, 65세 이상부터 접종 시작</li> <li>- 모든 접종비는 정부 부담으로 무료 배포</li> <li>○ 시노백 백신 긴급사용 승인 완료('21.1.13), 의료계 종사자 등 접종그룹 우선순위에 의거 접종 시작('21.1.14)</li> </ul>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Gov Mobile 앱, 전자서류 부문에서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백신 접종 확인서 조회 기능</li> <li>○ 보건부, 4.26일부터 카자흐스탄 자체 개발 QazVac 백신 접종 시작</li> <li>○ 4월말 Sinopharm 백신 40만 도스 공급 완료, 5월 중 60만 도스 공급 예정</li> <li>- 백신을 구매한 Samruk Qazyna 국가펀드 직원에게 25만도스 접종 시행, 카자흐 국민에게 나머지 75만 도스 접종 시행 예정</li> <li>○ 스푸트니크V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간격을 21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 단, 21일 이후 접종 시행하고자 하는 자 대상으로 백신 접종 가능</li> <li>○ 중국 자체 개발 시노백 바이오엔테크 백신 500,000도스 공급('21.6.1)</li> <li>- 현재 카자흐스탄 개발 QazVac, 러시아 개발 Sputnik V, 이집트-중국 개발 Hayat-Vax 백신 접종 가능. 미국 화이자 백신은 등록되었으나 아직 미공급</li> <li>○ 자체개발 2번째 백신인 Qazcovac-P, 임상 전 단계 통과.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발표, 곧 첫 번째 백신인 Qazvac 임상시험 상세 내용 발표 예정</li> <li>○ 보건부, 화이자 백신 공급에 대한 잠정 합의 : 2021 4분기 공급 예정이('21.7.15)</li> <li>○ 보건부, 러시아 백신 'Sputnik Light' 임시 등록 증명서 발급('21.7.12)</li> <li>○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협상 재개('21.7.16)</li> <li>○ 카자흐스탄 접종 백신 : Sputnik V, QazVac, Sinopharm, HayatVax</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 국가, 백신증명서 발급 계획 발표</li> <li>- 백신접종 시작('20.12.19) 이후 1.24일 기준 현재 인구 100명당 41.8회 백신 투여 완료</li> <li>- 노령층과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 대상 우선 접종 시작, 접종 후순위에 해당하는 그룹도 본인</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미주	몽골	<p>희망 시 접종 가능, 정상적 학사 일정 운영과 대학입학 시험 일정으로 부모 동의하에 16~18세 그룹도 접종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2회차 접종자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 'Green Booklet' 발급</li> <li>○ 이스라엘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필수, 도착 후 의무자기격리 필수(해외 백신접종 확인서 인정 안함) 및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자가 의무격리 면제 신청 가능</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88,940회분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예정</li> <li>○ 중국에서 지원한 30만 회분 시노팜 백신 도착('21.2.23)</li> <li>○ COVAX 프로그램 25,740회분의 화이자 백신 도착('21.03.24)</li> <li>○ '21.4.5일부터 만 18~49세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1.4.3)</li> <li>○ 하루에 3만명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21.4.5)</li> <li>○ 4.21일에 50,40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착('21.4.22)</li> <li>○ 중국에서 30만 회분의 시노팜 백신 도착('21.4.24)</li> <li>○ 5.10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예정( '21.4.30)</li> <li>○ 몽골에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1.5.1)</li> <li>○ 5.2일에 4만 회분의 Stuprik V 백신 도착 및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접종 예정('21.5.2)</li> <li>○ 정부, 임산부 및 수유모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예정('21.5.27)</li> <li>○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6.14일부터 임산부 및 16~17세 청소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21.6.14)</li> <li>○ 일본에서 무상원조로 84,240회분의 화이자 도착('21.6.16)</li> <li>○ 보건부, 6.28일부터 12~15세 청소년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실시</li> <li>○ 8월부터 코로나19 3차 접종 시작 관련 논의 중 ('21.7.7)</li> <li>○ 2만 회분의 Sputnik V 백신 도착( '21.7.14)</li> <li>○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율 56.1% (' 21.7.19)</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타항공,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운송 체계 구축 완료</li> <li>-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내 위치한 대규모 물류창고 및 냉각시설과 의약품 수송관련 인증을 받은 세계 45곳 공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에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 완료</li> <li>- KLM Martinair Cargo, Virgin Atlantic Cargo와 협력</li> <li>○ FDA, 12.18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li> <li>- 모더나 백신, 3만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2차 접종 시 94.1% 예방 효과 기록</li> <li>○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원인 연구</li> <li>○ 시우스웨스트 항공, 전 직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li> <li>- 백신은 연방정부 지원, 접종 비용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 항공사 부담 예정</li> <li>○ 캘리포니아주, 3.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li> <li>- 암, 만성 신장·폐질환 등 기저질환 및 다운증후군 등 장애인 접종 가능(16-64세)</li> <li>○ 화이자 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항체 보호 효과 3분의 2 떨어질 수 있음(2.17)</li> <li>○ 화이자, 임산부 대상으로 백신 안정성 입증 위한 임상시험 실시(2.17)</li> <li>○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파우치소장, 올 7월 말 모든 국민 접종 분량 확보 예상(2.18)</li> <li>○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효과가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발표.</li> <li>3주 후 2차 접종을 할 경우 효과가 95%로 나타남(2.19)</li> <li>○ FDA,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만장일치로 긴급사용 승인 권고</li> <li>○ 바이든 대통령, 5월 말까지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 계획 발표(3.2)</li> <li>○ 5월 말까지 존슨앤드존슨 백신 1억회분 추가 확보. 모더나/화이자 백신 각각 2억회분 확보 예정</li> <li>○ 유나이티드·에미칸 항공, 이르면 3.11일부터 직원들에게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li> <li>○ 청소년용 코로나 백신 올 가을, 어린이용(5~12세) 내년 1분기 개발 예정</li> <li>○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2~15세 긴급사용 승인( '21.5.13일부터 접종 시작)</li> <li>○ 캘리포니아주, 4.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li> <li>○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해제 (단, 희귀 혈전 위험성 문구 백신 라벨에 추가)</li> <li>○ 알래스카주,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관광객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li> <li>○ LA, 4.13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허용</li> <li>○ 코로나19 백신 예약 없이 약국 방문하여 접종 가능</li> <li>○ 백신 1차 접종률 56.1%(186백만명, '21.7.19 기준)</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바백스(4월이전) 백신 승인 예정</li> <li>○ 백신수급 사태를 계기로 노바백스 백신 캐나다 국내 생산하기로 동사와 MOU 체결 발표</li> <li>* 단, 벨리도 가을부터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li> <li>○ 보건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이어 4번째. 존슨앤존슨(안센) 백신 승인(3.5)</li> <li>* 1천만 회분 선구매, 2800백만 회분 추가구매 가능하며 2분기 공급 시작 예정</li> <li>○ 캐나다, 6월말까지 16세이상 전 인구 코로나백신접종 완료 계획 발표(3.18)</li> <li>○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NACI: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55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발표(3.29), 30세 이상자로 접종가능 연령 범위 확대(4.23) * 대부분 주는 40세, 퀘벡은 45세, BC주 30세 이상 대상</li> <li>○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AZ(아스트라제네카)백신 150만 회분 수령(3.30)</li> <li>○ (21.4.25 기준) 캐나다백신접종 29.0%(1회 이상 접종 인구), 접종분량 12,045,041회분, 공급물량 13,700,694회분</li> <li>○ 존슨앤존슨 백신 30만 회분 첫 수령( '21.4.28), 화이자 100만, 모더나 65만 회분 금주 수령</li> <li>○ 세계 최초 화이자 백신 12-15세 대상 사용 승인( '2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22부터 온타리오주 12세-17세 화이자백신 접종 예약 시작</li> </ul> </li> <li>○ 캐나다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부작용 사망자 3명 발생( '21.5.4 기준)</li> <li>○ 온타리오주, 모든 성인 5.23일까지 백신접종 예약 가능 및 5월 말까지 성인인구의 65%가 1차 접종 완료 예정</li> <li>○ 보건부, '21.5.4일 12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 후 온타리오주는 6월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계획. 일부 지역은 5.11일부터 사전예약 시작</li> <li>○ (21.7.17 기준) (1차) 26,495,816명(전국민 대비 69.5%) /12세 이상 79,14% (2차) 18,756,816명(전국민 대비 49.2%) /12세 이상 55.56%</li> </ul>
대양주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내 백신접종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2.22일부터 호텔 격리시설 종사자들, 최일선 의료진, 노인 및 장애인 케어시설 거주자 및 직원 대상 백신 접종 개시</li> <li>- '21.3.22일부터 1b 그룹(70세 이상 고령자, 55세 이상 호주원주민, 의료계 종사자 등) 화이자 &amp;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작</li> <li>- '21.5.3일부터 2a 그룹(50세 이상, 18세 ~ 49세 원주민, 고위험군 종사자 등)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작</li> <li>- '21.6.8(화)부터 40세-49세 사이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li> <li>- 예방 접종 본격화로 주별 접종 연령 기준 상이(ex.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주, 30세 이상, 노던테리토리 16세 이상 접종 가능)</li> <li>- ( '21.7.17일 기준) 2차 접종 약 2,801,465명(10.91%), 1차 접종 약 7,265,981명(29.29%), 호주식품안전청 승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만 2차 접종인원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실제 2차 접종인원은 더 많고, 1차 접종인원은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됨</li> </ul> </li> <li>- 호주올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출전 선수 500여명 및 스태프 700여명 대상 5-6월 중 백신 투여</li> </ul> </li> <li>○ 호주 백신접종 계획 및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대상 그룹을 1a, 1b, 2a, 2b, 3의 총 5개 단계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접종 확대. 최전선에서 일하는 격리 호텔, 공항, 의료진, 요양원 근로자 1백 4십만 명이 1a에 해당되며 화이자 백신 투여</li> <li>- 당초 10월 내 전 국민 접종 완료 목표였으나, 2021년 말까지로 조정</li> <li>- 병원 및 약국을 통해 접종 예약가능하며, 대부분 운전 면허증만 제시하면 접종 가능</li> <li>- 접종처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쇄가능형태로 이메일로 발송, 웹/앱 확인 가능</li> <li>- 호주 정부 면역 등록(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시스템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을 처방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li> <li>- 백신 투약 시, 성별, 모국어, 태어난 국가 및 호주 원주민 여부를 기록해 커뮤니티 별 백신 접종 기피 집단을 분석하는 데 사용 예정. 정부가 추후 누적된 데이터를 공식 발표할지는 미결정.</li> <li>- 60세 미만 화이자 백신 접종(당초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li> </ul> </li> </ul>
구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파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 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 하루 만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영국 NHS는 과거 약품, 음식, 백신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당분간 백신접종 중단 권고</li> </ul> </li> <li>○ 임신부는 백신 접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롭다는 증거는 없으나 임신부대상 임상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임.</li> </ul> </li> <li>○ 최고 의료책임자, 새로운 변종이 백신이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 없다고 발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두 번째 접종 완료 7일 경과 후 면역력 생성</li> <li>○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 세계 최초 승인( '20.12.30) 및 1.4일 접종 시작</li> <li>○ 백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접종 전날 저녁 알코올 섭취 금지 권고(면역학 전문가)</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5일부터 일일 수십만명 이상으로 백신접종 확대 계획 발표</li> <li>○ 모더나 백신 사용승인( '21.1.8)</li> <li>○ <b>코로나19 백신 접종자 46,314,039명 (1차), 36,099,727명 (2차) ( '21.7.18 기준)</b></li> <li>○ 모더나 백신 영국발 및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는 것으로 발표</li> <li>○ 7월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완료예정(1차 접종 기준)</li> <li>○ 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 1차 접종 완료 및 일일 접종자 수 최고치 기록(66만명, '21.3.19)</li> <li>○ 4월 중순까지 목표대로 9개 우선순위 접종자 대상자 접종 완료 예정(의료종사자, 50대 이상 등 3,180만 명)</li> <li>○ 영국에서 세 번째로 사용 승인된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 '21.4.7)</li> <li>○ 안센 백신 영국에서 네 번째로 사용승인( '21.5.28)</li> <li>○ 화이자 백신 12-15세 청소년 대상 사용승인( '21.6.4)</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당국 산하 백신위원회, 백신 우선 접종 권고 초안 마련 및 관계 기관에 배포</li> <li>- 첫 번째 그룹 : 80세 이상 고령자, 양로원 혹은 요양원 거주자, 응급실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위험 그룹과 접촉이 빈번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 * 우선 접종 대상 규모 : 860만명</li> <li>* 우선 접종 대상 중 65세 미만은 연령에 제한된 백신(예: 아스트라제네카)으로 접종 규정(제 2조 2항, 3조 2항, 4조 3항)</li> <li>- 두 번째 그룹: 76-80세 고령자, 치매환자 돌봄시설 거주자 및 의료진, 돌봄시설 의료진,간병인 등 및 임환자, 중증 당뇨 환자, 만성 신장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li> <li>- 세 번째 그룹 : 71세~75세 고령자, 망명 및 노숙자 보호소 거주자, 의료 시설, 특히 병원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직위 (예 : 클리닉 및 관행의 청소 직원 또는 병원 기술 직원) 및 공중 보건 서비스에 고용 된 직원에 노출 위험이 중간 정도인 직원(접종규모 약 550만명)</li> <li>- 네 번째 그룹 : 66세-70세 고령자, 중등도 질환환자 접촉자, 교사 및 교육자, 계절 근로자, 육가공 근로자, 택배업 및 유통업자 등, (접종규모 약 690만명)</li> <li>- 다섯 번째 그룹 : 60세-65세 고령자, 소매업, 주 및 연방 정부 주요직원, 중요 인프라 직원(소방대, 군대, 경찰, 대중 교통 또는 폐기물 관리) (접종규모 약 9백만명)</li> <li>○ 개봉한 백신앰플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개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유동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제3조 3항)</li> <li>○ 교사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2.24 개시</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 시 우선순위나 나이 제한 없이 접종 가능</li> <li>○ '21.5.22일부터 안센(Johnson &amp; Johnson) 백신 접종 시행</li> <li>○ '21.6.7일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 해제, 성인 누구나 접종 가능</li> <li>○ 6.7일부터 12세 이상 아동 및 모든 성인은 백신 접종센터와 가정의를 통해서 예약 및 접종 가능</li> <li>○ '21.7.1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  (1차) 49,806,108명(전국민 대비 59.9%)/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안센 등  (2차) 38,547,915명(전국민 대비 46.4%)/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안센 등</li> <li>○ 슈판 보건장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허용 요청</li> <li>○ 슈판 보건장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허용 요청</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고령층 등 취약집단부터 우선 접종</li> <li>- (1월~)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 직원 등 100만 명 대상 우선 제공</li> <li>- (2월~)코로나19 취약 만성질환 환자, 의료진을 중심으로 1,400만 명 대상 제공</li> <li>- (4월~6월) 전 국민 대상 확대</li> <li>* 의무 접종이 아닌 선택이며, 프랑스 인구보다 많은 1억 명 기용 백신 2억 회분 확보(인당 2회 접종)</li> <li>* 무료 제공으로, 사회보장예산 약 1조 9천억 원 책정</li> <li>○ 모더나 백신 1.11일 프랑스에 입고</li> <li>○ 백신물량 부족으로 2.2일부터 1차 접종 일시 중단, 3월 첫째 주로 연기</li> <li>○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간병인 대상 우선 접종 시작, 3월 말까지 누적 백신 접종 인원 800만 명 목표</li> <li>○ 3월부터 모더나 백신 하청 생산, 공급 물량 확대 청신호</li> <li>*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4월, 큐어백 백신은 5월부터 하청 생산 예정</li> <li>○ 유럽연합, 모더나 백신 3억 회분 추가 구매 계약</li> <li>○ 코로나19에 취약한 50-64세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li> <li>○ 3.20 기준, 613만 명(프랑스인의 10%) 1차 접종 완료, 이 중 절반은 2차 접종까지 완료. 4월 중순까지 2천만 명, 5월 중순까지 2천만 명, 올 여름까지 3천만 명(프랑스인의 50%) 접종 목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3월 말까지 EU에 4백만 회 분 추가 백신 제공 예정</li> <li>○ 3.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단, 55세 이상에게만 권고</li> <li>○ 유럽연합(EU), 코로나19 백신 접종 7.14일까지 집단면역 달성 목표, EU-제약사 간 계약한 물량 확보 전까지는 역대 생산 백신 수출제한 등 규정 강화</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연합, 아스트라제네카 공급 계약 종료(6월) 이후 추가 계약 계획 없음. 화이자와는 2022-23년 기용 백신(18억 회 분) 계약 체결</li> <li>○ '21.7.18일 기준 백신접종현황                      (1차) 37,544,220명 (전국민 대비 55.7%)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2차) 30,339,179명 (전국민 대비 45.0%)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li> <li>* 단, 아스트라제네카는 만 55세 이상에게만 접종 권고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55세 미만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교차 접종)</li> <li>* 5.3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확대</li> <li>○ '21.5.10일부터 만 50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 5.3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확대 (단, '21.5.12일부터는 5.31일 전이라도 여분의 백신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 없이 하루 전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및 접종 가능)</li> <li>○ '21.6.15일부터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 확대</li> <li>○ 1차 백신 접종 후 2차 백신 접종 간격 최대 49일까지 연장 발표( '21.6.15)</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백신 : 2종(Sputnik V, EpiVacCorona)</li> <li>- Sputnik V 생산계획국가 : 헝가리, 인도, 한국,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li> </ul> </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 개시(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접종대상 : 의료진, 교사, 공공서비스 분야 근로자 / 18-60세</li> <li>- 백신생산량 : 232,000 도즈(~2020.12), 6백만 도즈 / 월(2021.1~)</li> <li>- 기타 : Sputnik V 효능 91.4%, Sputnik V 접종 유효기간 2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결합 접종 실험</li> </ul> </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자 150만명 돌파</li> <li>○ 모스크바, 1.13일부터 호텔 및 여행사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예정</li> <li>○ 러시아 백신 '에피박코로나' 60세 이상 고령 대상 3단계 임상시험 완료(접종효과 지속 기간 1년) 및 3월부터 대량 생산 시작</li> <li>○ 모스크바 시민 백신 접종자 약 1백만명 달성</li> <li>○ 러시아 군대, 40만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li> <li>○ 푸틴 대통령, 자국의 백신으로만 21년 8월까지 60%의 러시아인 접종 완료를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700만회, 2월 1,100만회, 3월 1,500만회 백신 생산 예정이며 8월까지 총 7천만회 접종 예정</li> </ul> </li> <li>○ 러시아 첫 번째 백신 스푸트닉 V 판매 가격 인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기준 스푸트닉 V 백신 약 1,100만명 접종 완료, 현재 러시아인 대상 무료 제공</li> <li>* 스푸트닉 V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최근 국내외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현재 접종이 중단된 상태임</li> </ul> </li> <li>○ 모스크바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을 받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00루블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 실시</li> <li>○ '21.7.18일 기준 백신접종현황                      (1차) 32,163,192명 (전국민 대비 22.00%) / Sputnik V, EpiVacCorona, Covivac                      (2차) 20,761,722명 (전국민 대비 14.20%) / Sputnik V, EpiVacCorona, Covivac</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 화이자 백신 승인에 따라 90세 이상 시민부터 접종 개시</li> </ul>